Entertainment p/17

영화 '차이나타운' 김고은

메트로 2015년 4월 29일 수요일 제3207호 www.metroseoul.co.kr

Sports p/21

KT 용병교체 카드 꺼낸다

여기서 야채 팔아도돼?

메트로 창간 13주년 기획 〈相生〉◆자영업을 살리자 - 흑석시장 p/12

이마트에브리데이 전통시장 중심부서 채소·과일·생선 장사

흑석동 전통시장

이마트에브리데이 흑석점

이완구·홍준표 털기 시작 검찰, 일정 담당자 소환

p/23

고해의 바다를 건너 해탈하기를 네팔 강진으로 가족을 잃은 유족들이 27일(현지시간) 희생된 가족의 시신을 화장하고 있다. 국민의 90% 가까이 힌두교를 믿는 네팔인들은 시신을 사망 후 24시간 내에 화장한다. 힌두교에서는 화장 후 뼈와 재를 강물에 버리면 해탈한다고 믿는다. 수도 카트만두 곳곳에서 시신을 화장하는 냄새가 진동하고 있다. /연합뉴스

'네팔 지진' 국민 25%가 피해

사망자만 5000명 육박… 네팔 총리 "최대 1만명 사망" 추정

네팔 대지진으로 800만명가량이 피해를 입고, 이 중 200만명가량이 심각한 피해를 입은 것으로 전해졌다. 네팔 국민의 수는 3000만명남짓이다. 25%가 넘는 국민이 피해를 입은 셈이다.

네팔 주재 유엔 상주조정실은 27일(현지시간) 최신 보고서에서 "네팔에서 일어난 지진 강도에 기반한 초기 추정에 따르면 이번 지진은 39개 지역에서 800만명에게 피해를 끼쳤다"며 "가장 심하게 피해를 본 지역은 11곳으로 그 이재민 수는 200만명이 넘는다"고 밝혔다.

국가비상사태를 선포한 네팔 정부는 전날부터 육군 10만여명을 동원해 수색과 구조 작업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하지만 생존자 인명 구조가 가능한 '골든타임'인 지진 후 72시간이 지나면서 네팔 총리조차 사망자가 최대 1만명까지 늘 수 있다는 암울한 관측을 내놓고 있다. 28일자 AP통신 보도에 따르면 네팔 경찰이 추산한 사망자 수는 4352명이다. 부상자는 8063명이다.

현지에서는 강진 이후 여진이 잇따랐다. 다행히 지난 사흘간 100여 차례 발생한 여진의 횟수와 강도가 눈에 띄게 줄어들고 있다. 이날 오전 관측된 여진은 4.5 규모로 지난 26일 최고 6.7에 비해 크게 낮아졌다.

네팔을 향한 국제 사회의 지원 손길도 바빠지고 있다. 네팔에 100만 달러의 긴급 구호자금을 보낸 미국은 900만 달러를 추가해 총 1000만 달러를 지원하기로 했다. 구조요원과 구호품을 실은 두 대의 공군 수송기까지 투입했다. 이밖에 한국, 중국, 인도, 프랑스, 이탈리아, 영국, 캐나다, 호주, 파키스탄, 아랍에미리트(UAE), 이스라엘, 스위스, 노르웨이, 싱가포르 등 세계 각국과 국제기구로부터 구조대원과 의료·구호품이 속속 도착하고 있다.

하지만 지진과 산사태에 따른 도로 붕괴, 전력·통신망 불안, 열악한 현지 인프라 등으로 구조 작업이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다. 농촌 지방의 도로가 상당수 끊긴 가운데 몇 안 되는 헬기를 띄워도 비와 강풍으로 착륙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전언이다.

한편 650여명으로 추산되는 우리 교민들도 현지 주민과 마찬가지로 여진 우려로 집에 들어가지 못하고 적게는 몇 가구에서 많게는 몇십 가구씩 가까운 공터에 모여 천막 신세를 지고 있다.

/정윤아기자 yoona1@metroseoul.co.kr

美 메릴린드주 '비상사태' 선포

구금 중 사망한 흑인청년 장례식 직후 대규모 흑인폭동

美 볼티모어시에 방독면 낀 시위대. /연합뉴스

미국 메릴랜드주 볼티모어에서 구금 중 사망한 흑인 프레디 그레이의 장례식이 열린 27일(현지시간) 항의시위 참가자들이 경찰과 충돌해 방화와 약탈 등 폭력 사태로 번졌다. 계속되는 폭동 우려에 메릴랜드 주정부는 비상사태를 선포하고 주방위군을 투입할 태세에 들어갔다.

이날 현지언론에 따르면 래리 호건 메릴랜드 주지사는 이날 오후 긴급 기자회견을 통해 비상사태를 선포했다. 이후 호건 주지사는 1000명의 주 경찰을 볼티모어에 증원했고 주방위군을 대기시켰다. 비상사태 선포를 요청한 볼티모어시는 28일부터 일주일 동안 밤 10시에서 새벽 5시 사이 통행금지를 실시하기로 했다.

이번 폭력 시위는 지난 주말 흑인인 그레이가 경찰 체포과정에서 척추를 다치고 혼수상태에 빠졌다가 1주일만에 사망하면서 불거졌다. 그레이는 체포 과정에서 심하게 다쳤고 여러 차례 응급조치를 요구했지만 경찰은 즉각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정윤아기자 yoona1@

미국마저 흔들… 글로벌경제 '빨간불'

글로벌 경제에 '빨간 불'이 켜졌다. 그리스라는 폭탄이 언제 터질지 몰라 노심초사하는 유럽에 이어 회복세를 보이던 미국 경제마저 성장세가 둔화되고 있다. 글로벌 경제의 엔진 역할을 하던 중국도 7%대 성장률 유지가 불투명한 상황이다.

28일 외국계 투자은행에 따르면 외국계 금융기관 85곳에서 미국의 올해 1분기 국내총생산(GDP) 증가율 전망치가 평균 1.25%에 그칠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지난해 11월 전망치 3.00%보다 대폭 하락한 수치다. 1% 이하로 떨어질 수 있다는 보다 비관적인 전망도 있다.

달러 강세로 인한 수출 부진, 미국인 개인의 소비지출이 제한적 회복에 그치는 등 여러 요인이 거론되고 있다.

중국의 경제성장률은 2010년 10.4%에서 2011년 9.30%로 떨어진 이후 하락세가 계속되고 있다. 2014년 7.40%에서 더욱 하락할 가능성이 점쳐진다. 중국의 경제성장 동력인 제조업이 부진을 면치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올해 1분기 성장률은 7.0%였다. /송병형기자 bhsong@

정부 비웃는 편의점… 불법 담배광고 여전

담배광고판이 가게 외부에서 보이게 하는 것은 법 위반이라며 당국이 실태조사와 처벌에 나서겠다고 공언한 상태에서도 일부 편의점들은 여전히 이런 상황을 개선하지 않고 영업을 지속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8일 서울 종로구의 주택가 초입의 한 CU(씨유)편의점은 출입구 근처 내부에 있는 계산대 주위로 KT&G의 '레종'을 비롯한 5~6개의 담배를 선전하는 화려한 빛깔의 광고판과 벽보가 빙 둘러가며 부착돼 있다.

이들 광고판은 수 미터 떨어진 가게 바깥 쪽에서도 무슨 담배 광고인지 구분할 수 있을 정도로 선명하게 보였다.

국민건강증진법은 제9조의4에서 '소매판매업자가 담배 광고물을 매장 내부에 전시· 부착할 수는 있지만 영업소 외부에 광고 내용이 보여서는 안 된다'고 명시하고 있다.

이를 어길 경우에는 1년이하의 징역이나 1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할 수 있도록 벌칙 조항도 두고 있다.

금연운동협의회는 최근 학교 근처 편의점 151곳을 조사한 결과 내부에 설치된 담배광고를 외부에서 볼 수 있는 곳이 90%가 넘었다고 발표했다.

이에 따라 보건복지부는 5월부터 올해 말까지 전국 편의점 2500곳을 방문해 담배 광고와 판촉에 관련된 위법 여부를 조사할 예정이라고 뒤늦게 밝힌 바 있다.

/강민규기자 unha@

28일 오후 서울 양천구에 한 GS25 편의점 내부 담배광고가 매장 외부에서도 훤히 보이는 가운데 학생들이 지나가고 있다. /손진영기자 son@

김영란법 통과 때 국민은 눈 뜬 장님이었다

국회 '빈 껍데기' 법안공개제도… 수정안은 상임위만 파악

지난달 3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김영란법(부정 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은 온 국민의 관심사였다. 당시 언론은 법안을 둘러싼 위헌 논란과 국회 처리 과정에 대한 보도를 쏟아냈다. 하지만 정작 국민은 법안을 직접 읽고 스스로 판단할 수는 없었다. 오직 언론이 정한 관점에서 지켜볼 수밖에 없었다.

언론이라고 국민보다 크게 나을게 없었다. 언론 역시 국회의원들, 정확히는 김영란법에 직접 관련된 의원들의 입에 의존할 수밖에 없었다. 김영란법이 정무위원회와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하는 동안 수정된 내용을 직접 확인할 수 없었기 때문이다.

김영란법 원안의 명칭은 '부정청탁 금지 및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 법안'이다. 원안 중 이해충돌 방지 부분을 들어내는 등 수정을 거쳤다. 구체적인 수정 내용은 오직 관련 상임위원만 알고 있었다. 국민은 귀동냥만 가능한 눈 뜬 장님이었던 셈이다.

28일 국회 의안 공개업무 담당자는 메트로신문과의 전화 통화에서 "상임위원회에서 의결을 해서 본회의 단계까지 올리기 전에는 수정안을 의결한 것으로 안 보기 때문에 일반인에게 공개가 안되는 것"이라며 "최종 결정된 것도 아닌 상태에서 공개됐을 때는 혼란을 살 수 있다"고 말했다. 국회는 온라인상 국회의안정보시스템을 통해 법안을 비롯한 의안들을 국민에게 공개하고 있다. 담당자의 말은 법안이 본회의에 상정되기 전의 수정 과정을 일반인은 확인할 수 없다는 말이다.

발의된 법안은 관련 상임위 내 법안심사소위에서 심의된다. 법안소위는 상임위 내 극히 일부의 의원만이 참여한다. 법안은 법안소위 심사 과정에서 대부분 수정되거나 폐기된다. 상임위 전체회의에 올라가서 다시 수정되기도 한다. 중대한 법안들은 특히 이 과정에서 논란에 휩싸이는 경우가 태반이다. 여야 간 대립이 심할 경우 입법 시한까지 논란이 계속된다. 시한 마지막 날 본회의와 상임위가 동시에 열리고, 법안이 상임위 통과와 함께 본회의 표결에 부쳐질 때도 많다. 이 경우 수정된 법안은 본회의 표결 때까지 전문을 확인할 수 없다. 김영란법도 마찬가지 경우다.

3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제331회 국회(임시회) 제8차 본회의에서 '김영란법'이 통과되고 있다. /연합뉴스

한 법률전문가는 법안의 전문을 살펴봐야 하는 이유에 대해 "문구 하나만 달라도 전혀 다른 법안이 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할 수 있다'와 '해야 한다'는 전혀 다른 의미라고 예시를 들기도 했다.

지난 23일 보건복지위를 통과한 국민건강증진법 개정안은 아이유의 주류 모델 광고 출연을 막는 법이라는 이유로 논란이 됐다. 이 개정안 역시 상임위에서 수정됐지만 전문은 공개되지 않았다. 당시 개정안 통과 소식을 처음 전한 언론 역시 상임위 관계자의 말을 인용해 전했을 뿐이다.

/김서이기자 redsun217@metroseoul.co.kr

"엄마 아빠, 꼭 투표하세요" 경기도 성남 중원 국회의원 보궐선거를 하루 앞둔 28일 오전 투표소가 설치될 중원구 성남동주민센터에서 성남동어린이집 어린이들이 부모의 투표 참여 캠페인을 벌이고 있다. /연합뉴스

'성완종 사태' 대통령 메시지, 사과는 단 한 줄

박근혜 대통령은 28일 김성우 청와대 홍보수석이 대신 읽은 '성완종 리스트' 파문에 대한 입장 발표에서 "어제 국정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해 더 늦출 수 없는 사안이라 안타깝지만 국무총리의 사의를 수용했다"며 "이번 문제로 국민 여러분께 심려를 끼쳐 드려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사과했다. 그 이상 사과의 말은 없었다.

박 대통령은 대신 "그동안 만연돼왔던 지연, 학연, 인맥 등의 우리 정치문화 풍토를 새로운 정치문화로 바꾸고 켜켜이 쌓여온 부패구조를 청산하기 위해 금품 의혹 등 과거부터 어떻게 만연돼 왔는지를 낱낱이 밝혀서 새로운 정치개혁과 문화를 만들어 나가야 한다"며 여야에 정치개혁을 주문했다.

특히 "최근 고 성완종 씨에 대한 두 차례 사면이 문제가 되고 있다"며 "이 문제에 대해서도 제대로 진실을 밝히고 제도적으로 고쳐져야 우리 정치가 한 단계 더 발전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새누리당이 2007년 말 성완종 특사에 대해 문재인 당시 대통령 비서실장 책임론을 제기한 것과 같은 맥락으로 보인다.

박 대통령은 "저는 법치주의를 확립하기 위해 사면은 예외적으로 특별하고 국가가 구제해 줄 필요가 있는 상황이 있을 때만 행사하고 그에 대한 국민적 합의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한다"며 "특히 경제인 특별사면은 납득할 만한 국민적 합의가 있어야 가능한 일"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저는 그동안 극히 제한적으로 생계형 사면만 실시했다"며 "고 성완종 씨에 대한 연이은 사면은 국민도 납득하기 어렵고 법치의 훼손과 궁극적으로 나라 경제도 어지럽히면서 결국 오늘날 같이 있어서는 안 될 일이 일어나는 계기를 만들어주게 되었다"고 했다.

박 대통령은 특검 도입과 관련해서는 "특검은 현재 진행되는 검찰 수사를 지켜본 후에 국민적 의혹이 남아있다면 여야가 합의해서 해야 할 것"이라며 "의혹이 남는다면 당연히 해야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송병형기자 bhsong@

野 '성완종 특검법' 당론 발의

상설특검 뛰어넘는 역대 최대 수사인력 구성

새정치민주연합이 28일 역대 최대 수사인력을 구성하는 '성완종 특검법'을 당론으로 발의했다.

새정치연합의 특검안은 상설특검법이 정한 수사인력을 뛰어 넘는다. 상설특검법의 수사인력은 특검보 2명, 특별수사관 30명, 파견검사 5명, 파견공무원 30명 규모다. 새정치연합의 특검안은 특검보 5명, 특별수사관 45명, 파견검사 15명, 파견공무원 50명 규모다. 이 같은 규모는 지금까지 있었던 10차례의 특검 역시 뛰어 넘는다.

특검 후보를 복수로 하지 않고 여야 합의로 한 명만 추천하는 점이 특징이다. 친정부 성향의 인사가 선택되는 경우를 원천 봉쇄하겠다는 의도로 분석된다.

수사 기간 역시 상설특검법의 최대 90일이 아닌 최대 150일로 정했다. 기본 90일에 30일씩 두 번 연장할 수 있게 하는 방식이다.

이춘석 새정치연합 전략홍보본부장은 "상설특검법에는 독소조항이 있어 개정할 필요가 있다"며 "이번 성완종 파문은 별도 특검에 의해 조사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이날 박근혜 대통령은 대국민 메시지에서 특검은 할 수 있지만 검찰 수사 이후 가능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그러면서 새누리당과 마찬가지로 2007년 말에 있었던 '성완종 특별사면'을 문제 삼았다. 당시 대통령 비서실장이었던 문재인 새정치연합 대표를 겨냥한 발언이다. 새정치연합의 특검안 발의는 이에 대한 반격으로 해석된다.

/이정경기자 jkljkl@

President Park 'Weakened Health Condition and Stressed Out'

Presidential medical staff has advised rest for one or two days after returning from Central America. According to the officials, President Park got her health check-up in Seoul after her return and adnominal pain caused by stomach cramps due to chronic fatigue was her major symptom. The president's health condition was not good (during the trip), as she also had a mild fever caused by pharyngitis," he said, adding that Park powered through her schedule and traveled to Columbia, Peru, Chile and Brazil, despite her bad health. It is unknown if she can some rest because of the unfinished political business that must be taken care of regarding 'Sung Wan Jong Stir.' People are demanding an apology on this matter and a replacement must be found in place of Lee Wan Gu who backed off from his position.

/파고다어학원 영어회화
Chris Kim(김윤관) 강사

박 대통령 '몸은 아프고 마음은 무겁고'

중남미 4개국 순방을 마치고 27일 귀국한 박근혜 대통령이 하루 이틀 절대 안정이 필요하다는 진단을 받았다.

청와대에 따르면 박 대통령은 귀국 직후 서울 모처에서 몸 컨티션과 관련한 검진을 받았다. 검진 결과 과로에 의한 만성피로 때문에 생긴 위경련인 것으로 나타났다. 박 대통령은 콜롬비아, 페루, 칠레, 브라질 등 중남미 4개국 순방 중에 지속적으로 심한 복통과 미열 증상을 보였다. 하지만 순방 성과를 내기 위해 매일 주사와 링거를 맞으며 강행군을 이어갔다. 피로 누적과 감기 몸살에 의한 합병증이라는 설명이다.

박 대통령이 편히 휴식을 취할 수 있을지는 의문이다. 해결해야 할 심각한 문제들이 산적해 있기 때문이다. 당장 여야는 강도는 다르지만 '성완종 파문'에 대한 박 대통령의 사과를 요구하고 있다. '성완종 파문'으로 물러난 이완구 총리의 후임자도 골라야 한다.

계륵된 '뉴스테이'

윤경용의 So what

정부의 정책은 시장과 궁합이 맞아야 성공한다. 그래야 정책의 실효성도 생긴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1월 전월세난 해소를 위해 '뉴스테이' 사업을 꺼냈다.

대통령 신년 업무보고를 통해 첫선을 보였던 뉴스테이는 기업형 민간 임대주택 사업을 말한다.

이 사업은 서울을 기준으로 월 100만원 가량의 월세로 분양주택과 비슷한 임대주택에서 8년까지 살 수 있게 설계했다. 중산층 임차수요를 겨냥한 것이다.

1월에 나온 뉴스테이 사업이 아직도 국회 문턱을 넘지못하고 방황중이다. '뉴스테이법' 4월 국회통과는 사실상 물건너 갔다. 6월 임시국회에서 논의할 예정이다.

뉴스테이 사업은 정부가 발표할 당시부터 많은 논란이 일었다.

정부가 정작 살펴야 할 무주택 서민용이 아닌 상대적으로 살만한 중산층을 고려한 전월세 대책이었다.

여기에 월세 100만원을 내고 뉴스테이에 살 수 있는 임대수요가 얼마나 있을지에 대한 수요예측도 어설펐다.

공급측면에선 더 답답하다.

뉴스테이가 성공하려면 일단 민간 건설사들이 움직여야 한다. 현대건설 삼성물산 대우건설 등 대형 건설사의 고급 브랜드가 절실하다.

정부가 대형 건설사들에게 온갖 특혜를 주면서 참여를 유도했지만 요지부동이다. 대형 건설사들에 대한 구애가 안쓰러울 정도다.

건설사 입장에선 봄바람 탄 분양시장을 만끽하기 정신없다. 상황이 이런데 '뉴스테이'가 눈에 들어올리 만무하다. 정부로선 민간 분양시장의 꽃바람이 야속할만 하다.

건설사들이 기업형 민간임대주택 시장에 시큰둥한 이유다.

이런저런 혜택이 있는 뉴스테이 사업에 건설사들이 주저하고 있는 이유는 정책의 일관성에 대한 의구심도 한 몫한다. 불확실성을 싫어하는 시장의 심리가 반영된 것이다.

이런 상황에서 국토부와 LH는 수도권 3개지역의 부지에 뉴스테이 민간사업자 공모절차에 들어갔다. 화성동탄, 위례, 김포한강 등이다. 건설사들이 눈독을 들일 만한 수도권 부지다. 뉴스테이법은 국회 문턱도 넘지 못했는데, 법적 근거도 없는 뉴스테이 민간사업자 공모절차에 들어간 셈이다.

마음 급해진 국토부가 반쪽짜리 뉴스테이를 강행하고 있는 것이다. 뒷짐지고 있는 건설사들이 뉴스테이 사업에 발을 담글지는 지켜볼 일이다.

정부는 차제에 전월세대책의 프레임을 다시 고민할 필요가 있다.

시장의 공급주체인 건설사들의 참여가 미온적인 상황에서 고급브랜드로 중산층 임차수요를 품겠다는 전월세 대책이 유일무이한지 재검토해야 한다.

무주택 서민들의 전월세난 해결을 위해 토지주택공사(LH)의 장기임대주택 건설을 늘리는 방안이 더 절실하다.

'중국 바라기' 국내 화장품

기자 수첩
김 수 정
<생활유통부 기자>

중국인 특수로 화장품 주가 연일 화제다. 예전에는 주식시장에서 자동차·화학·정유를 일컬어 '차·화·정'이라 불렀다. 최근에는 '차이나·화장품·정보통신'이 새로운 '차·화·정'으로 등극했다.

아모레퍼시픽은 장중 400만원을 돌파하며 '황제주'로 등극했다. 토니모리·네이처리퍼블릭 등 상장을 앞둔 중소 화장품 업체들도 증권사로부터 고평가를 받고 있다. 한류 영향으로 중국 내에서 국내 화장품이 인기를 얻고 있기 때문이다.

한국을 찾는 중국인 관광객, 이른바 '요유커'들은 화장품을 박스 채로 사간다. '메이드 인 코리아'라고 하면 무조건 사고 본다는 것이다.

국내 소비자보다 요유커들의 씀씀이가 더 크다 보니 화장품 업체들은 중국 명절까지 챙기며 마케팅에 열을 올리고 있다. 화장품 브랜드숍이 몰려있는 명동에선 국내 소비자가 요유커들보다 찬밥 취급 당하는 현상도 종종 연출된다.

요유커 덕에 힘입어 지난해 화장품 소매판매액은 16조 2900억원으로 12조원대였던 2010년보다 4조원 가량 늘었다.

그러나 수직 상승하고 있는 화장품 시장에 대해 중국인 거품이 빠질 경우를 우려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성장을 이끌 뾰족한 대안이 없기 때문이다. 그렇게 많던 일본인 관광객이 빠지고 난 뒤 빈 자리는 중국인이 채웠다. 하지만 중국인의 빈자리를 채울 다음 국가는 떠오르지 않고 있다. 뜨거운 한류 열풍 역시 언젠가는 식을 것이다. 장기적으로는 높은 중국인 의존도가 화장품 산업에 독이 될 수 있다.

철벽처럼 버티고 서 있는 '중국인 특수'가 무너지기 전에 대비책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또 할인과 같이 제 살을 깎아먹는 마케팅이 아닌 좋은 제품으로 국내 소비자들의 지갑을 열기를 기대해 본다.

인사

■ 문화체육관광부
◇ 전보 <과장급> △ 기획조정실 창조행정담당관 이수명 △ 문화예술정책실 문화여가정책과장 한민호 △ 체육관광정책실 체육정책과장 박성락 △ 체육관광정책실 국제체육과장 정기원 △ 종무실 종무1담당관 송병호 △ 종무실 종무2담당관 나경환 △ 국립중앙박물관 문화교류홍보과장 김승규 △ 국립중앙도서관 자료수집과장 이신호 △ 국립중앙도서관 자료운영과장 신명숙 △ 국립어린이청소년도서관 기획협력과장 이경애 △ 국립중앙도서관 국립세종도서관장 성정희 ◇ 임용 △ 감사관실 감사담당관 백승필

■ 한국화이자제약
◇ 선임 <전무> △ 컨슈머헬스케어 사업부 총괄 신동우

■ 헤럴드
◇ 전보 및 직책조정 △ 기획조정실장 김형곤

■ 헤럴드경제
◇ 전보 및 직책조정 △ 온라인뉴스룸 편집장 정덕상 △ 디자인데이터룸 편집위원 박승윤 △ 인터내셔널섹션 에디터 홍길용 △ 경제복지섹션 에디터 황해창 △ 정치섹션 에디터 신창훈

부고

▲ 백경주씨 별세, 백상훈(KB투자증권 DCM2팀 차장)씨 부친상, 최지혜(금융감독원 자산운용감독국 선임조사역)씨 시부상 = 27일 오후 8시 5분, 신촌 세브란스병원 장례식장 15호실, 발인 29일 오전 8시, 장지 서울추모공원, 02-2227-7577

▲ 박순규씨 별세, 황의서(서울시립대 교수)·의중(불암고 교사)·의진(재미교포)·유정(독립기념관 이사)씨 모친상, 황희승(잡플래닛 대표)씨 조모상 = 27일 오후 3시 20분, 서울삼성의료원 장례식장 20호실, 발인 30일 오전 7시, 02-3410-6920

▲ 최종백씨 별세, 최문성(광문고 교사)·문석(재미 사업)·문수(GS칼텍스 차장)씨 부친상, 신동휘씨(CJ대한통운 부사장) 장인상 = 28일 오후 , 인천 인하대병원 장례식장 5호실, 발인 30일, ☎ 032-890-3180

▲ 강후방씨 별세, 지정연(전남지방경찰청 고속도로순찰대장)씨 장모상 = 28일 오전 2시, 광주 북구 그린장례식장, 발인 30일 오전 9시 ☎ 062-250-4455

기사제보=02)721-9861

삼성카드·대구銀·삼성화재 3년 연속 민원평가 '1등급'

금감원, 81개사 민원발생 평가 발표

지난해 금융소비자들의 민원에 대처를 가장 잘 한 곳은 삼성카드와 대구은행, 삼성화재 등으로 나타났다.

28일 금융감독원은 은행과 신용카드, 생명보험, 손해보험, 금융투자, 저축은행 등 6개 권역 81개사를 대상으로 민원발생 평가를 실시한 결과 이같이 나왔다고 밝혔다.

이번 평가는 작년 한해 동안 금융회사들의 민원건수와 해결 노력, 영업 규모 등을 감안해 실시됐다.

1등급 금융회사는 모두 15개사로 은행권에서는 광주은행과 대구은행이 꼽혔다. 신용카드 부문에서는 삼성카드와 신한카드, 우리카드가 선정됐다.

생명보험사 중에서는 교보·농협·미래에셋·신한·한화생명이, 손해보험은 농협·동부화재·삼성화재 3개사가 1등급을 받았다.

이밖에 금융투자업계와 저축은행권에서는 현대증권과 웰컴저축은행이 유일하게 이름을 올렸다.

금감원은 우수 등급 금융사에 마케팅에 활용할 수 있도록 최우수 금융회사 마크를 부여키로 했다. 특히 2012년 이후 3년 연속 1등급을 달성한 대구은행과 삼성화재, 삼성카드 등 3개사에는 표창장을 준다.

한편 올해 금융사 민원평가 결과 발표에서는 우수등급을 매긴 금융사 명단만 공개됐다.

민동휘 금감원 소비자보호총괄국 팀장은 "올해는 1등급만 공개키로 했다"며 "민원평가 하위등급은 해당 금융사 홈페이지에서 확인하면 된다"고 설명했다.

그간 금감원은 1등급(우수)부터 5등급(매우 미흡)까지 순위를 매겨 공개해왔다. 하지만 앞으로는 결과가 궁금한 금융 소비자가 직접 각 금융사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해야 하는 것이다.

민 팀장은 "금융사 자율적으로 민원 대응 능력을 키우도록 한 조치"라며 "단 5등급으로 평가된 금융회사에 대해선 현장점검을 통해 민원발생원인과 처리결과 등을 직접 확인하고 제도개선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해 민원업무 개선을 유도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또 "해당 금융회사 CEO, CCO 등 경영진 면담 등을 통해 자율적인 소비자보호 역량강화를 유도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이와 함께 금감원은 민원발생평가를 2014년으로 종료하고 2016년부터 소비자보호 리스크를 종합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소비자보호 실태평가제도'를 도입키로 했다.

금융회사의 민원 발생 내용을 간편하게 확인할 수 있도록 금융회사 홈페이지에 '소비자포털(가칭)'을 구축, 민원건수와 민원접수, 소비자보호 관련 사항을 게시할 계획이다.

/백아란기자 alive0203@metroseoul.co.kr

삼성생명은 28일 인천 계양구 건강가정지원센터에서 '사람, 사랑 공동육아나눔터' 22호점을 개소했다. 이날 개소식에서 (왼쪽 네번째부터) 송정희 컨설턴트사회공헌위원장, 김중열 여성가족부 가족정책과장 등 내외빈들이 현판 제막을 하고 있다. /삼성생명 제공

삼성생명, 공동육아나눔터 22호점 개소

삼성생명은 28일 인천 계양구 건강가정지원센터에서 '사람, 사랑 공동육아나눔터' 22호점 개소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날 개소식은 사업 추진 경과 보고와 현판 제막, 공동육아나눔터 돌아보기 등의 순서로 진행됐다.

공동육아나눔터는 저출산·육아 지원을 위해 삼성생명이 지난 2012년 9월 여성가족부와 협약을 맺고 추진 중인 사업이다.

나눔터는 자녀가 있는 부모들이 아이와 함께 놀고, 공부하고, 비슷한 또래 친구들을 만나게 할 수 있는 공간이다. 장난감과 도서 대여도 가능하고 육아 정보도 제공한다.

삼성생명은 나눔터 환경 개선을 위한 리모델링과 장난감·도서·책장 등 교육 자재를 지원하고 있다.

송정희 삼성생명 컨설턴트사회공헌위원장은 "저출산·육아 문제는 부모뿐만 아니라 국가와 사회가 함께 책임져야 하는 일"이라며 "전국의 공동육아나눔터를 통해 아이들이 부모와 사회의 사랑을 받으며 꿈을 키워나갈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김형석기자 khs84041@

5인 한 달 식비가 600만원?

서울시, 재건축·재개발 조합 부조리 196건 적발

5인 한 달 식비로 600만원을 쓰고, 동의서를 받는다는 명목으로 500만원을 들여 차량을 구입한 뒤 월 평균 130만원의 차량 유지비를 사용하는 등 예산을 방만하게 운용한 정비조합이 적발됐다.

서울시는 재건축·재개발 조합 24개 구역에 대한 현장실태점검을 실시, 총 196건의 부적정 사항을 적발했다고 28일 밝혔다.

시·구 공무원과 회계전문가로 구성된 합동점검반은 지난해 9월부터 올해 1월까지 각 조합에 대해 ▲예산편성과 집행 ▲자금차입 ▲계약 ▲자금관리 ▲조합행정 ▲정보공개 등 6개 분야를 중점적으로 점검했다.

적발된 사항 중 절반 이상인 108건이 예산편성과 집행 분야에 집중됐다.

일부 조합은 정관에 없는 종교분과위원장이란 직책을 만들어 월 100만원씩 1900만원을 예비비에서 지급했다 적발됐다. 회의가 없는 달에도 이사회 회의수당을 월 급여 형식으로 총 5700여만원 부당 지급한 조합도 있었다.

이밖에 총회 의결사항에 대해 관행적으로 사후추인하고, 현금을 과도하게 사용하거나 개인명의 통장을 조합자금 이용에 사용하는 등 관행적 부조리가 여전히 존재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시는 적발된 사항 중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위반 등 규정을 위반한 162건에는 시정명령을 내렸다. 또 24건은 제도 개선을 추진하고 부적정하게 지급된 각종 보수와 수당, 추진위원장이 업무와 관련 없이 쓴 돈 등 3억 4300만원은 환수 조치했다.

시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위반은 고발조치가 원칙이지만 조합의 법규이해 부족, 관행적 사례 등을 감안해 이번에 한해 행정지도하고 앞으로는 사법처리할 방침이다.

시는 추가로 52개 구역에 대해 올 연말까지 현장실태점검을 완료할 계획이다. 아울러 내년부터는 자치구도 전문가를 포함한 합동점검반을 구성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을 추진해 서울시와 자치구 투트랙(two-track)으로 상시점검 체계를 구축할 방침이다. /박선옥기자 pso9820@

metro 메트로신문사
서울시 종로구 경희궁길9(신문로2가)
TEL:02)721-9800, FAX:02)730-1551

발행·인쇄인	남궁호
사장·편집인	김종학
편집국장	강세준
광고문의	02)721-9851,3
독자센터	02)721-9861

2002년 5월 31일 창간/등록번호 서울특별시 가00206

국민은행, 직원대상 'KB자산관리 로드쇼-Super China' 개최 KB국민은행은 지난 27일 서울 마포구 서울가든호텔에서 중국의 정치·경제·문화·외교 등에 대한 폭넓은 정보를 제공하는 직원 자율참여 연수 'KB자산관리 로드쇼-Super China'를 개최했다고 28일 밝혔다. 이날 로드쇼에서 직원들이 강의를 듣고 있다. /KB국민은행 제공

"힘내요 네팔"… 은행권, 네팔돕기 힘모아

금융권이 네팔 대지진 피해 구호에 두팔을 걷고 나섰다.

지난 25일 카트만두 인근에서 발생한 강진으로 사망자 수가 4000명을 넘어선 가운데 이를 돕기위한 긴급 구호성금과 수수료 면제 등 다각도의 지원방안을 마련, 구호활동에 일조하겠다는 계획이다.

28일 금융권에 따르면 KB금융그룹은 대지진으로 인해 막대한 인명과 재산피해가 발생한 네팔에 피해복구 성금 1억원을 지원키로 했다.

계열사인 KB국민은행은 개인, 기업고객 모두에게 네팔로 해외송금시 송금수수료를 전액 면제할 방침이다. 네팔 국적 국내 체류자의 환전수수료도 90% 할인한다.

이와 함께 국민은행은 네팔과의 수출입거래 등으로 피해가 불가피한 국내 기업들을 지원하기 위해 네팔지역 수출로 인해 발행한 수출환어음 매입대금 입금 지연시 해당 대금을 정상여신으로 취급키로 했다.

한국수출입은행은 지진 피해를 입은 네팔 구호를 위해 5000만원의 성금을 네팔대사관측에 전달했다.

수은 관계자는 "네팔은 대외경제협력기금(EDCF) 중점지원국"이라며 "네팔 모디강 수력발전소 건설사업과 차멜리아 수력발전소 건설사업에 각각 1500만 달러와 4500만 달러의 EDCF를 제공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우리은행은 강진으로 피해를 입은 네팔 국민에게 도움이 되고자 해외 송금 수수료를 면제키로 했다.

이에 따라 국내 소재 네팔 국적자들이 고국으로 해외송금을 하거나 정부·단체·개인 등이 네팔로 구호대금을 송금할 때 발생하는 수수료는 면제된다.

통상 해외송금시 발생하는 수수료는 최저 5000원에서 최대 2만 5000원으로 해외 송금시 창구직원에게 송금사유를 설명하면 전액 면제처리 된다. 면제기간은 우선 28일부터 5월 29일까지 한 달간 적용된다. 환율도 50% 우대한다.

이밖에 하나, 외환, 신한 등 다른 은행들도 네팔 돕기에 동참할 것으로 전해졌다. /백아란기자

보험업계 '모바일슈랑스' 시대 본격 돌입

손보사 이어 생보사도 시스템 도입 잇따라
대면채널 대비 현저히 낮은 비중 등은 의문

이제 국내에서도 모바일기기로 보험을 가입할 수 있는 '모바일슈랑스' 시대가 열렸다. 모바일슈랑스가 저금리기조 지속에 따른 업계 불황을 극복할 수 있는 대안이 될지 주목받고 있다.

28일 생보업계에 따르면 교보라이프플래닛생명은 지난 27일부터 모바일을 통해 보험에 가입할 수 있는 서비스를 시작했다.

이 서비스를 이용하면 가입부터 유지·지급 등 보험 전 과정을 스마트폰과 테블릿PC 등 모바일기기로 진행할 수 있다.

보험소비자는 또 모바일어플리케이션만 다운받으면 계약변경, 보험금 청구, 대출 등 지금까지 PC 홈페이지에서만 가능했던 서비스를 모바일로 이용할 수 있다.

앞서 메트라이프생명 한국법인이 지난 2011년 모바일 보험영업 지원시스템(MOS·Mobile Office System)을 개발한 적이 있었지만 생보업계에서 모바일전용 보험상품이 출시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라이프플래닛에 이어 KDB생명도 어린이·정기·연금·암보험 등 5개 내외의 모바일 전용 상품을 준비중이다.

손해보험업계에서는 이미 모바일슈랑스가 도입돼 활용 중이다.

삼성화재는 지난 2010년 '마이애니카 M' 모바일 앱을 통해 스마트폰에서자동차보험(이하 자보)을 직접 설계하고 가입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구축했다.

삼성화재는 현재 자보에 이어 운전자·주택화재종합·해외여행보험 등으로 모바일 보험 서비스 범위를 확대하고 있다.

이 때문에 업계에서는 모바일슈랑스가 경쟁악화와 저금리기조 지속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보험사에게 하나의 대안이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받고 있다.

미국 식품의약국에 따르면 올해 전 세계 5억명의 스마트폰 사용자가 헬스케어 앱을 이용해 모바일슈랑스가 앞으로 지속 성장할 것으로 내다봤다. 미 식품의약국은 또 미국 글로벌 모바일 헬스케어 시장도 오는 2017년에 260억 달러 규모로 성장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국내에서도 모바일슈랑스의 성장세는 지속되고 있다.

삼성화재의 지난해 모바일 가입 고객은 13만9000여명으로 출시 첫해인 2010년(1000여명)보다 140배 가까이 증가했다.

반면 부정적인 시각도 있다.

국내 보험업계가 아직 대면채널 비중이 높기 때문. 지난해 생명보험업계의 초회보험료 중 인터넷채널이 차지하는 비중은 0.04%(47억500만원)에 불과하다. 반면 대면채널은 99%(12조1476억8000만원)에 달한다. 이미 모바일슈랑스가 도입된 손보업계도 인터넷채널 비중은 1.5%(1조1052억6300만원)에 불과하다.

업계 관계자는 "업계에서는 스마트폰 사용자가 증가하면서 모바일로 쉽게 보험에 가입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개발하고 있다"며 "인터넷을 활용한 보험은 대면채널보다 사업비가 적고 소비자가 직접 가입하기 때문에 불완전판매가 적은 장점이 있다"고 말했다.

다만 이 관계자는 "모바일슈랑스의 성장세는 지속될 것으로 보이지만 대면채널의 비중이 높은 만큼 장기적인 관점에서 봐야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김형석기자 khs84041@metroseoul.co.kr

신한금융, '신한 창조금융플라자' 출범식 개최 신한금융그룹은 28일 경기도 성남시 소재 신한은행 판교테크노밸리금융센터에서 '신한 창조금융플라자'의 출범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신한 창조금융플라자는 신한은행의 기업금융지점에 신한금융투자(이하 금투)의 투자금융전문가를 배치한 기업금융 플랫폼이다. 이날 출범식에서 한동우(가운데) 신한금융 회장 등이 테이프커팅을 하고 있다.

/신한금융그룹 제공

SK건설 '신동탄 SK뷰파크 2차' 30일 분양

SK건설은 오는 30일 경기 화성시 기산동 57번지에 공급하는 '신동탄 SK뷰파크 2차' 견본주택을 개관, 1196가구를 분양한다고 28일 밝혔다.

지하 2층, 지상 24층, 14개동, 전용면적 ▲59㎡ 468가구 ▲ 84㎡ 728가구, 전체 1196가구 규모다.

단지가 들어서는 기산지구는 인근 반월지구와 묶어 전체 72만㎡ 부지에 아파트 8000여 가구, 인구 2만명을 수용하는 주택지구로 개발될 예정이다. 동탄1신도시와 수원 영통지구 사이에 위치한다.

경부고속도로와 용인서울고속도로, 동탄~수원 간 도로 등이 가깝다. 수서와 동탄을 잇는 KTX 동탄역이 2016년 개통을 앞두고 있다. 일산과 동탄을 잇는 GTX(수도

권광역급행철도)도 추진 중이다.

약 700m 떨어진 곳에는 20만명이 근무하는 삼성전자 화성캠퍼스가 있다. 동탄메타폴리스, 한림대병원, 이마트, 빅마켓 등 주요 생활·편의시설을 편리하게 이용 가능하다.

단지는 풍부한 녹지공간과 다양한 테마조경 등으로 꾸며진다. 약 1500㎡ 규모로 지어지는 커뮤니티센터에는 피트니스센터, 샤워장, GX룸, 실내골프연습장, 스터디룸, 도서관 등이 들어설 계획이다.

주로 남향 4-bay 위주의 판상형 설계가 적용됐다. 전용 84㎡ 주택형 주방은 측면에 수납공간을 적용해 공간 활용도를 높였다. 전용 59㎡에도 발코니 확장 시에 드레스룸과 파우더룸, 'ㄱ'자형 주방이 제공된다.

분양가는 3.3㎡당 평균 940만원대다. 중도금(분양가의 60%) 이자 후불제 혜택이 있다.

내달 6일 특별공급을 시작으로 7일 1순위, 8일과 11일 2순위 청약을 시행한다. 15일 당첨자발표를 거쳐 20일부터 22일까지 계약이 진행된다.

견본주택은 경기도 화성시 반월동 643번지에 마련돼있으며 오는 30일 개관한다. 입주는 2017년 8월 예정이다.

/윤정원기자 garden@

오늘은 청약 Day… 8774가구 1순위 접수

5월 1일부터 이어지는 황금연휴를 앞두고 29일 전국적으로 14개 단지가 청약에 들어간다. 30일까지 청약 접수를 마무리 지어 연휴에 따른 수요자 이탈을 막기 위함이다.

28일 부동산정보업체 닥터아파트에 따르면 29일 전국 14개 사업장에서 1순위 청약을 받는다. 수도권 9곳, 지방 5곳이다.

서울에서는 대림산업이 중랑구 묵1구역을 재건축한 'e편한세상 화랑대'가 유일하게 공급된다. 전용면적(이하 동일) 59~96㎡, 전체 719가구 중 299가구가 일반분양 몫이다. 서울지하철 6호선 화랑대역과 6·7호선 태릉입구역을 걸어서 이용할 수 있다.

경기지역에서는 택지지구 중심으로 일제히 분양에 들어간다. 우선 의정부에서는 반도건설이 민락2지구 B10블록서 '반도유보라 아이비파크'를 선보인다. 78~84㎡, 총 939가구다. 단지앞에 도봉산역까지 연결되는 BRT정류장이 있다. 송산초교, 송양중·고교가 도보권이다

롯데건설은 파주시 운정신도시 A27-1블록에 '롯데캐슬 파크타운'을 공급한다. 59~84㎡, 전체 1076가구 규모다. 10월 개통 예정인 경의중앙선 야당역 역세권 단지다. 이마트, 운정호수공원, 파주문화원, 운정행복센터 등이 가깝다. 와석초, 한빛초·중·고와 인접했다.

한양은 이천시 증포3지구 5블록에서 '이천 증포새도시 한양수자인'을 분양한다. 72~84㎡, 620가구다. 성남~장호원 자동차전용도로가 2017년 개통 예정이다. 이마트, 교육지원청, 종합터미널 등의 편의시설을 갖췄다.

이 외 남양주 다산진건지구 B2블록과 B4블록에서 '자연&롯데캐슬'과 '자연&e편한세상'이, 용인 상현동에서 '레이크포레 수지'가, 수원 율전동에서 '성균관대역 동문굿노이힐'이 청약을 받는다.

인천에서는 호반건설 '서창2지구 호반베르디움' 1개 단지가 공급된다. 총 600가구로, 84㎡ 단일 면적으로 지어진다. 아파트가 들어서는 9블록은 중심상업지구 예정부지와 인접해있다. 일부 세대에서 소래생태습지공원 조망이 가능하다. 부지 바로 옆으로 한빛초교가 있다.

지방에서는 광주 소촌동 '소촌동 모아엘가 에듀퍼스트', 충남 천안시 신부동 '힐스테이트 천안신부', 충남 공주시 웅진동 '공주 금성백조 예미지', 충북 음성군 금왕읍 '음성금왕시티 프라디움', 제주 한림읍 동명리 '한림코아루'가 29일부터 청약 일정에 돌입한다.

/박선옥기자 pso9820@

證, 해외점포 흑자에도 시장 확대 '뒷걸음'

수익성 기대 못미쳐 잇단 철수
흑자 내고도 '애물단지' 전락
전문가 "네트워크 구축 중요"

국내 증권사의 해외점포가 5년 만에 흑자를 봤지만, 해외점포 수는 도리어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증권사들이 동남아 위주의 해외 진출을 선호하고 있는데다 수익성이 기대에 미치지 못해 통폐합 또는 철수하는 사례가 늘고 있기 때문이다.

28일 증권업계에 따르면 지난해 말 현재 국내 19개 증권사는 14개국에서 80개의 해외점포(영업점포 61개, 해외사무소 19개)를 운영하고 있다.

지난해 증권사 해외점포의 당기순이익은 1510만 달러로 전년보다 3960만 달러 증가하며 흑자 전환했다. 이처럼 국내 증권사 해외점포가 흑자를 낸 것은 지난 2009년 이후 5년 만이다. 그간 해외점포들은 지난 2012년과 2013년에 각각 870만 달러, 2440만 달러의 적자를 냈다.

지역별로 보면 14개국 중 9개국에서 적자를 기록했으며 흑자를 낸 지역은 4곳에 그쳤다. 흑자 지역은 홍콩(1320만 달러), 인도네시아(500만 달러), 브라질(440만 달러), 일본(130만 달러)이었다. 적자지역은 중국(300만 달러), 태국(200만 달러), 싱가포르(120만 달러), 영국(100만 달러) 등이었다. 캄보디아와 필리핀, 베트남 등지에서도 소폭 적자를 나타냈다.

증권사별로는 지난해 인도네시아 금융당국으로부터 종합증권사 면허를 획득한 KDB대우증권이 현지에서 33억원의 순이익을 올렸다.

NH투자증권은 인도네시아에서 코린도그룹과 합작해 설립한 NH코린도증권도 순익 10억원을 거뒀다. 키움증권 인도네시아법인은 5억원의 순익을 올렸으며 미래에셋증권도 브라질에서 23억원의 순익을 냈다.

◆수익성 악화로 해외점포 감소

이 같은 실적 개선에도 불구하고 증권사의 해외점포 수는 줄고 있는 상황이다. 해외점포 수는 지난 2012년 말 89개에서 2013년 말 84개, 지난해 말 80개로 꾸준히 감소했다. 미래에셋증권은 영국 런던 현지법인 영업을 중단했다. 현대증권(일본 도쿄), HMC투자증권(홍콩), SK증권(베트남 호찌민)도 각각 해외사업을 철수했다.

업계 관계자는 "그동안 경기 침체와 경쟁 심화 등으로 해외점포의 수익성이 악화된 상황"이라며 "특히 국내 증권사들이 동남아 위주의 해외 진출을 선호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실제로 국내 증권사의 아시아지역 해외점포 수는 전체 83개 중 67개로, 아시아지역 비중이 절대적이다. 여전히 '우물 안 개구리' 신세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이에 대해 전문가들은 "해외에서 적극적인 먹거리를 찾기 보단 해외진출 자체에 의미를 두다보니 생긴 일"이라고 지적한다.

경제 전문가들은 "해외 현지에서 적응하는데 시간이 오래 걸리는 데다 네트워크를 쌓는 게 어렵다"면서도 "운용실력을 활용한 상품을 개발하고, 이를 통해 경험을 쌓는 것이 중요하다"고 조언했다.

/김민지기자 minji@metroseoul.co.kr

KDB대우證, 최대 연 10.60% ELS 등 14종 판매 KDB대우증권(사장 홍성국)은 28일부터 최대 연 10.60% 수익을 추구하는 ELS 8종, DLS 5종, DLB 1종 총 14종을 1000억원 규모로 모집한다. 이번에 판매하는 '제13012회 HSCEI-EuroStoxx50-S&P500 하향계단식 조기상환형 ELS'는 만기 3년, 6개월 자동조기상환 상품으로 자동조기상환 평가일에 모든 기초자산의 종가가 각 최초기준가격의 90%(6·12개월), 85%(18·24개월), 80%(30·36개월) 이상인 경우 연 8.90% 수익을 제공한다.

사망보장금, 생활비로 미리 받는다

교보생명 '교보뉴종신보험'

100세 시대를 맞아 신개념 종신보험이 주목 받고 있다. 최근에는 사망 후 보장에서 '나'를 위해 의료비와 생활비를 미리 지급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교보생명의 '나를 담은 가족사랑 (무)교보New종신보험'도 이 같은 신개념 종신보험이다.

이 상품은 장수가 축복이 될 수 있도록 의료비나 생활비가 필요할 때 사망보험금에서 앞당겨 받을 수 있는 것이 특징이다.

먼저 이 상품은 국내 최초로 은퇴 후(60세, 65세, 70세 선택) 필요한 노후의료비를 사망보험금에서 선지급해 준다. 주계약 1억원에 가입할 경우 은퇴나이 이후 질병이나 재해로 입원하면 입원 첫날부터 하루에 5만원, 중증 수술을 받으면 1회당 200만원을 보장 받을 수 있다.

의료비는 8000만원까지(가입금액의 80% 한도) 횟수에 제한 없이 받을 수 있다. 의료비를 받다가 사망하는 경우 이미 수령한 의료비를 뺀 나머지 금액을 사망보험금으로 받는다.

노후자금이 부족할 경우 사망보험금에서 생활비를 충당할 수도 있다. 생활비가 필요하면 보험가입금액의 80%이내에서 가입금액을 매년 일정한 비율로 감액하고, 감액분에 해당하는 해지환급금을 매년 생활비(은퇴 이후부터 90세까지, 최소 2회부터 최대 20회까지)로 수령할 수 있다.

생활비를 수령하다 사망할 경우 그 시점의 잔여 사망보험금(가산금 포함)을 받게 된다.

건강을 잘 챙길수록 혜택이 커지는 점도 눈길을 끈다.

은퇴 후 10년간 매년 건강검진을 받을 경우 매년 7만원(1억 가입 기준)을, 건강에 문제가 없어 의료비를 받지 않는 경우에는 매년 3만원을 보너스로 적립금에 가산하거나 현금으로 받을 수 있다.

KT&G '담뱃값 악재'… 털었다 vs 멀었다

1Q 실적 발표 후 "매수 투자"
소비자단체, 부당이익 소송

KT&G가 최근 1분기 실적을 발표한 가운데 증시 시장에서는 KT&G의 향후 실적 전망치와 투자의견에 대해 엇갈린 반응이 나오고 있다.

KT&G가 이미 담뱃값 인상에 따른 고비를 넘겼고, 점유율 회복·배당증액에 대한 기대감으로 상승세를 이어갈 것으로 보는 시각이 일차적이다. 반면 점유율 감소에 따른 이익 하락 우려, 부당이익 편취 의혹 등은 하반기 KT&G의 악재로 남아 있다.

KT&G는 지난 23일 연결재무제표 기준 올해 1분기 매출액은 전년 동기대비 18% 상승한 1조1369억1200만원이라고 공시했다. 영업이익은 전년보다 64.7% 증가한 4285억3500만원, 당기순이익 역시 64.1% 오른 3087억7900만원을 기록했다.

KT&G의 어닝서프라이즈에 이날 KT&G 주가는 전일대비 6.24% 뛰어 9만8700원에 장을 마쳤다. 이튿날인 24일에는 장중 최고 10만3500원까지 오르기도 했다.

이에 대해 오소민 유진투자증권 연구원은 "KT&G는 전통적인 담배 산업의 비수기인 1분기에, 비경상적인 세금 인상 이슈까지 겹쳤음에도 당사 추정치인 1940억원을 상회하는 영업이익을 기록했다"며 "올해 1분기 전체 담배 판매량이 34.1% 감소한 것은 2~3분기 지속적으로 판매량을 회복해 하락한 시장 점유율을 되찾을 것"이라고 긍정적으로 분석했다.

김윤오 신영증권 연구원도 "올해 초 담뱃값 인상 등으로 나타났던 소비자 가격 저항이 사라지고 내수 담배업계 경쟁이 줄면서 점유율도 점차 회복될 것"이라며 KT&G의 올해 배당수익률을 3.6%로 전망했다. 목표주가도 기존 9만8700원에서 12만원으로 상향 조정했다.

KT&G에 대해 밝은 전망만 나오는 것은 아니다. 담배 총수요 감소와 시장 점유율 하락 우려가 계속될 것이란 지적이다.

한국희 NH투자증권 연구원은 "담뱃값 인상 시점에서 KT&G가 보유하고 있던 재고와 관련한 2000억원 수준의 일회성 매출을 제외하면 1분기 실적은 예상된 수준"이라며 "담배 총수요는 전년동기 대비 35% 줄어 생각보다 큰 폭으로 하락한 데 이어 올해 13% 더 감소하면서 점유율도 2.5%포인트 하락할 것"으로 예측했다.

한 연구원은 이어 "실적 변수의 핵심인 담배 총수요와 점유율 안정화에 시간이 필요할 것"이라며 "따라서 주당 배당금도 3400원 수준에서 크게 증가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더욱이 KT&G가 담뱃값 인상 시점에서 재고판매를 통해 차익을 챙긴 의혹이 제기돼 투자자들의 투자심리를 위축시키고 있다.

앞서 지난 15일 김태환 새누리당 의원은 "담배 제조사들이 담뱃세가 적게 부과될 때 생산한 재고를 올해 비싸게 유통해 6000억원의 차익을 챙겼다"고 주장했다.

KT&G는 즉각 "일부 세금 인상 관련 수익이 발생한 것은 사실이지만, 이는 유통 과정에서 불가피한 것"이라면서도 4년 동안 3300억원을 소외계층 복지와 글로벌 사회공헌 등에 투자할 계획을 밝혔다.

이에 한국담배소비자협회는 지난 27일 "부당이익 관련 여론을 의식한 제조사의 사회 환원에 대한 약속이 어떻게 지켜질지 지켜볼 것"이라며 "부당이득 반환소송과 함께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할 계획"이라고 맞받아쳤다.

/김보배기자 bobae@

엔 환율 장중 800원대 진입… 7년2개월만

원·엔 환율이 장중 100엔당 800원대에 진입했다.

28일 오전 9시 기준 원·엔 재정환율은 100엔당 897.28원으로, 전일 오후 3시 기준 거래가격 대비 5.01원 급락했다.

서울 외환시장이 개장하기 전에 100엔당 900원선 아래로 떨어진 적은 있었다. 그러나 장중에 공식적인 원·엔 재정환율이 800원대에 들어선 것은 7년 2개월 만에 처음이다.

원·엔 환율은 지난 23일 서울 외환시장 개장 전 비공식 재정환율(전일 원·달러 환율 종가 기준)이 900원선 아래로 떨어진 바 있다.

27일에도 원·엔 환율이 장중 100엔당 901.84원까지 밀리면서 900원선 붕괴를 위협했다.

이날 원·엔 환율 900원선 붕괴는 월말 수출업체 달러화 매도 물량이 나오면서 달러화 공급이 늘어난 데다가 외국인 자금의 주식시장 유입이 주요 요인으로 작용했다.

유가증권시장에서 외국인은 지난 7일 이후 15거래일째 주식을 순매수해 이 기간에만 4조6000억원의 외국인 자금이 순유입됐다.

"아우디, 반품차를 새차로 둔갑시켜 팔았다"

영업사원 양심고백 하자 지점 "사원 잘못" 일축 구매자 항의에 '모르쇠'

아우디코리아(대표 요하네스 타머)가 내부에 하자 위험을 가진 반품차량(매출취소차)을 새차로 둔갑시켜 판매한 사실이 알려져 논란이 일고있다.

28일 소비자 최상모(가명)씨는 "올해 초 아우디 A5 스포트백을 구매했는데 사용흔적이 있는 차를 양도받았다"며 "해당대리점에 항의했지만 사측에서는 모르쇠로 일관했다"고 밝혔다.

최씨는 "PDI(Pre-Delivery Inspection·배송전 검사)와 인도확인서를 구해 확인해 보니 구매 후 인도된 차량이 아님을 확인했다"며 "작년 12월 말일에 구매 직후 3일 뒤 평택 항구에서 차가 출고돼 올라오고 있다"는 아우디측의 말이 거짓이었음을 주장했다.

이어 그는 "차를 인도받는 날 내부를 확인해보니 운전자석의 시트커버와 헤드레스트 커버가 일부 뜯겨져 있는 상태였고 조수석의 커버도 모자 벗기듯 벗겨져 있었다"며 사용된 흔적이 뚜렷했다고 덧붙였다.

또한 구매할 때부터 수입면장, P

DI레포트, 인도확인서, 등록면부를 요청했으나 영업사원으로부터 "구하기 어렵다"는 답변만 들었다고 전했다.

김필수 대림대 자동차학과 교수는 "통상 국내에 판매되는 외제차의 경우 신차 관리를 하는 항구 근처의 PDI센터를 거쳐서 차량이 나온다"며 "구매자가 계약 직후 잔금처리가 완료되야 출고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인도 시기와 차량 상태를 기록한 PDI레포트를 확인하면 제때 출고된 차가 맞는지 확인할 수 있다.

신차가 아님을 의심한 최씨는 이정주 자동차소비자연맹 회장의 도움을 받아 인도된 차량이 아니라는 증거를 수집했고 이를 지점에 항의해 본인이 구매한 차가 반품차량임을 확인했다고 전했다.

이 회장은 "복수의 영업사원을 추궁한 결과 작년에 출고됐던 차인 것을 확인했다"며 "당시 영업사원은 끝까지 '본인이 판매용으로 미리받은 차'라며 거짓말을 했지만 결국 다른 양심있는 영업사원의 고백을 통해 반품차임을 확인했다"고 말했다.

그는 또 "이 같은 증거에도 불구하고 아우디측은 영업사원이 잘못한 것이지 지점에서 문제될 것은 없다"고 상황을 모면하려 했다고 전했다.

이에 이 회장은 "하자가 없는 새차라는 전산상의 기록을 조작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준 것이 해당 지점"이라며 "영업사원의 잘못으로 몰고가며 지점은 발뺌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정문경기자 hm0108@metroseoul.co.kr

삼성 '지펠 T9000' 국내 시장 고공행진

1분기 3만대 판매

삼성전자는 자사 냉장고 '지펠 T9000'이 올해 1분기에 3만대 판매를 돌파했다고 28일 밝혔다.

삼성전자 측은 "냉장고 판매 비수기인 1분기에 월 평균 1만대씩 전년 같은 기간 대비 20% 판매 성장을 기록하며 출시 이후 지속적인 판매 성장률을 보였다"고 설명했다.

'지펠 T9000' 업계 최초로 와이드 상냉장·하냉동의 T-타입 구조를 적용한 프리미엄 냉장고다. 900ℓ가 넘는 대용량 제품으로 냉장실과 냉동실 각각 컴프레서를 갖춘 '듀얼 컴프레서'를 적용, 온도를 더욱 정밀게 유지하고 저장성능과 에너지 절감 효과까지 갖췄다.

또 3개의 전문 냉각기를 갖춘 '트리플 독립냉각'으로 냉장고 각각의 칸 별 최적의 온도와 습도 유지 관리가 가능해 보습률이 뛰어나다. 냄새 섞임 걱정 없이

삼성전자 모델들이 서울 논현동 삼성 디지털프라자 강남본점에서 '지펠 T9000' 냉장고를 소개하고 있다. /삼성전자 제공

식재료를 더욱 신선하게 보관할 수 있다. 냉장실 내벽의 메탈로 냉기를 지속해서 유지할 수 있는 '메탈쿨링' 시스템이 탑재돼 냉기 보존력도 우수하다.

삼성 '지펠 T9000'은 ▲'15년 연속 한국 산업 브랜드파워 양문형 냉장고 부문 1위' ▲'국가브랜드 경쟁력 지수 9년 연속 1위 ▲'2014 글로벌 고객 만족도 가정용 냉장고 부문 10년 연속 1위'를 차지했다. 차별화된 기술력과 우수한 성능을 인정받고 있다.

삼성전자 관계자는 "앞으로도 고객 사랑에 보답하기 위해 삼성전자만의 차별화된 기술력을 바탕으로 소비자 기대와 만족도에 부응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조한진기자 hjc@

지하 3층서 지상 2층, 한번에 오른다

현대엘리베이터 국내 최장 에스컬레이터 운행

현대엘리베이터(대표이사 한상호)는 대구도시철도 3호선 신남역(대구광역시 중구 동산동)에 설치한 국내 최장 에스컬레이터가 최근 운행을 시작했다고 28일 밝혔다.

현대엘리베이터에 따르면 이번에 설치한 에스컬레이터는 모듈라 M1000 모델로 지하 3층과 지상 2층 57m 구간을 환승 없이 한 번에 연결한다. 시간당 수송능력은 6750명에 이른다. 국내 에스컬레이터 부문 기존 최장 기록은 서울 지하철 2·9호선 당산역 48m였으며 2위는 6호선 버티고개역 44m였다.

현대엘리베이터가 설치한 대구도시철도 3호선 신남역 최장 에스컬레이터가 최근 운행을 시작했다. /현대엘리베이터 제공

현대엘리베이터 관계자는 "당사는 카자흐스탄 알마티 지하철 1호선에 길이 100m에스컬레이터를 완공해 기술력과 안전성을 인정받은 바 있다"며 "대구의 새로운 랜드마크가 될 도시철도 3호선에 국내 최장 에스컬레이터를 설치한 것에 자부심을 느낀다"고 말했다. /정용기기자 yonggi@

한화 채용사이트, 구직자 눈높이로 개편

소통 강화·상시지원 가능

한화그룹은 기업의 특성과 업무에 부합되고 창의적이며 소통능력을 보유한 인재를 채용하기 위해 지원자들과 커뮤니케이션을 한다고 28일 밝혔다.

사측에 따르면 지난달 12일 새로 오픈한 '한화인' 채용사이트(www.hanwhain.com)는 취업희망자 시각에 맞춰 채용플랫폼을 개편했다.

상시 지원시스템을 구축해 지원자 편의성을 고려했다.

또 기업 호감도를 높이는 동시에 채용사이트 방문을 독려하고자 청년 구직자들의 눈높이에 맞춘 흥미롭고 유용한 콘텐츠를 대폭 강화했다.

이러한 노력의 일환으로 한화그룹은 지원자들에게 한화그룹 인재상을 효과적으로 알리고자 '불꽃을 품은 당신'이라는 테마로 감성적인 채용 홍보영상을 제작했다.

이 영상은 게시 3주 만에 조회 수 130만 건을 넘은 바 있다.

한화그룹은 입사지원 후 아무런 피드백이 없는 타 기업과는 달리, 실제 인사담당자가 직접 출연한 깜짝 감사 메시지를 모바일로 개별 발송하는 등 지원자들을 위한 세심한 배려를 하고 있다고 전했다.

한화그룹 채용담당자는 "많은 기업들이 창의적인 사고와 커뮤니케이션 능력을 갖춘 인재를 뽑기 위해 제도를 바꾸고 있지만, 정작 우리의 기업문화와 인재상을 알고 입사지원을 하는 지원자들은 많지 않은 것 같다"며 "우리를 격의 없이 보여주고 소통하기 위해 채용사이트를 개편하고 홍보영상과 감사 메시지를 만들어 공개한 후, 전년대비 하루방문자는 185%, 입사지원자도 60%이상 늘었다"고 밝혔다.

/이정필기자 roman@

벤츠 울산 서비스센터 확장 이전

메르세데스-벤츠 코리아는 기존의 울산 서비스센터를 울산 남구 남중로(삼산동 214-2)에 확장 이전(사진)했다고 28일 밝혔다.

사측에 따르면 울산 서비스센터는 연면적 5977㎡(약 1800평) 규모의 6층 건물이다.

PC룸, 카페테리아로 구성된 고객 대기실과 120여대 가량의 주차가 가능한 시설을 갖췄다. 백화점·대형마트와 인접한 중심가에 있다.

확장 이전한 울산 서비스센터에서는 메르세데스-벤츠의 공인자격증을 보유한 전문 정비사들이 울산 지역 고객에게 서비스를 제공한다.

차량 입고부터 출고에 이르는 전 과정에서 철저한 전담제, 해피콜 사후관리, 전담 픽업 & 딜리버리, 발레 파킹, 긴급 출동, 스팀 세차 등을 펼친다.

울산 서비스센터의 영업시간은

주중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다. 주말(공휴일 포함, 전화 1688-2369)은 휴무다.

메르세데스-벤츠 코리아는 이번 울산 서비스센터를 포함해, 전국 총 31개 전시장 및 35개 서비스센터를 갖추고 있다. /이정필기자

아이폰에 열광한 中, 갤럭시 S6도 관심 보이나

애플, 중국시장서 분기 최고 수익 '대박' 갤럭시 S6·엣지 성적, 2분기 실적에 직결

'중국의 힘'이 글로벌 정보기술(IT) 업체를 쥐락펴락하고 있다. 세계 최대 스마트폰 시장인 중국내 판매량에 따라 실적이 춤추면서다. 애플이 아이폰을 앞세워 중국에서 승승장구하는 가운데 삼성전자의 전략폰 갤럭시 S6·갤럭시 S6 엣지(사진)의 성적표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애플은 28일(한국시간) 2015 회계연도 2분기(2014년 12월 28일~2015년 3월 28일) 실적을 발표했다. 애플은 매출 580억 달러(약 62조1000억원), 순이익은 136억 달러(약 14조5000억원)를 기록했다.

역대 분기 최고 수익을 기록한 애플은 중국에서 괄목할만한 성과를 냈다. 전분기 대비 72% 성장한 아이폰 판매량이 결정적이었다. 월스트리트저널 등 외신은 애플의 수익 성장의 상당 부분을 중국 시장(홍콩·대만 포함)이 견인했다는 분석을 내놓고 있다.

이 기간 애플 이익의 69%를 아이폰이 담당했다. 글로벌 시장에서 약 6120만대의 아이폰이 판매된 것으로 집계된 가운데 처음으로 중국 판매량이 미국을 추월했다.

블룸버그 등 외신에 따르면 올 회계연도 2분기에 애플은 중국시장에서 아이폰 1800만~2000만대를 판매했다. 미국 내 판매량은 1400만~1500만대 수준이다.

글로벌 스마트폰 시장에서 애플과 경쟁하는 삼성전자 최근 갤럭시 S6·갤럭시 S6 엣지를 출시하고 중국시장 공략에 나섰다. 예약 물량이 전작인 갤럭시 S5에 4배에 이르는 등 초기 반응은 좋은 것으로 알려졌다.

삼성전자 관계자는 "중국에서 (S6·갤럭시 S6 엣지의) 판촉 마케팅을 지속할 것"이라고 말했다. 흐름을 지켜보면서 상황에 맞춰 대응하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중국 시장에서 갤럭시 S6·갤럭시 S6 엣지가 꾸준한 성적을 낼 수 있을지는 의견이 엇갈리고 있다. 역대 최고 판매량을 기록하며 중국 스마트폰 시장 1위로 재등극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는 반면 큰 성공을 기대하기 어려울 것이라는 의견도 있다.

증권업계와 전자업계는 올해 2분기 삼성전자의 영업이익을 약 8조원, IM 사업부의 영업이익을 4조원대 초반으로 전망하고 있다. 갤럭시 S6·갤럭시 S6 엣지의 판매 낙관론이 가장 큰 이유다. 지난 1분기 삼성전자와 IM사업부의 영업이익 추정치는 각각 5조9000억원, 2조7000억원이다.

최근 한국에서 갤럭시 S6·갤럭시 S6 엣지의 판매가 당초 기대를 밑도는 가운데 중국에서까지 고전하면 삼성전자의 2분기 매출은 직격탄을 맞을 수 있다.

이 경우 부품과 소재를 공급하는 삼성전기·삼성SDI·삼성디스플레이까지 수익 감소가 불가피할 전망이다. 실제 이 회사들은 지난해 갤럭시 S5의 판매 부진이 실적악화의 부메랑이 됐다.

유의형 동부증권 연구원은 "(갤럭시 S6·갤럭시 S6 엣지가) 잘 만든 제품임은 분명하다. 그러나 하이엔드 제품의 경쟁이 너무 치열하다"며 "중국에서 예전만큼 많이 팔기는 힘들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조한진기자 hjc@metroseoul.co.kr

삼성, 최고의 기능인 뽑는다

제8회 삼성기능경기대회에서 용접 부문 참가자가 경기에 임하고 있다. /삼성 제공

제8회 삼성기능경기대회 국내외 계열사 141명 참가

삼성이 28~30일 한국기술교육대학교 천안캠퍼스, 삼성전자 구미사업장, 삼성중공업 거제 기술연수원에서 제8회 삼성기능경기대회를 개최한다.

삼성기능경기대회는 우수 기능인을 발굴, 육성하기 위해 매년 개최되는 삼성만의 기술 경연 행사다. 국내외 삼성 계열사와 해외 법인·협력사 임직원이 참여한다.

이번 대회에는 삼성전자, 삼성디스플레이, 삼성전기, 삼성SDI, 삼성중공업 등 5개 계열사와 중국, 인도, 브라질 등 9개국 20개 법인, 2개 해외 협력사 등에서 총 141명의 선수가 출전했다.

대회 종목은 제조 현장의 핵심 기능인 ▲CNC 밀링 가공 ▲사출조건 최적화 ▲자동화시스템 구축 ▲전기제어시스템 제작 등 총 7개 직종이다. 올해는 CNC 밀링 가공과 사출조건 최적화 등 2개 종목이 신설됐다.

삼성은 올해 기능 경연 이외에도 국가대표 기능 시연과 신입기능인력 워크숍 등 다양한 부대행사를 함께 마련했다. 또 이번 대회 기간 중에는 전국 공업고등학교 학생 400여명이 행사장을 찾아 대회를 참관하고, 선배 기능인들의 경험과 조언을 공유하는 시간도 가질 예정이다.

개회식에 참석한 김종호 삼성전자 글로벌기술센터장(사장)은 "제조 기술은 삼성의 핵심 경쟁력 중 하나다. 그 기반엔 현장에서 묵묵히 제 몫을 다하고 있는 우수한 기능 인력이 있다"며 "이번 대회에서 그간 갈고 닦은 실력을 유감없이 발휘하고 그 성과를 다시 제조 현장에 전수함으로써 삼성의 제조 경쟁력을 한 단계 더 발전시켜나가자"고 당부했다.

한편 삼성은 우수 기능인 우대 풍토를 형성하고 저변을 확대하기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2006년 고용노동부과 기능장려협약을 체결한 데 이어 2007년부터는 국제기능올림픽대회와 전국기능경기대회를 후원하고 있다. 또 전국기능경기대회 출신 우수 기능인력을 지속적으로 채용해 일자리 창출에도 힘쓰고 있다.

/조한진기자

LTE 힘입은 LGU+, 1분기 영업익 36.7%

<1547억원>

번호이동 시장 안정화 마케팅 비용 감소 효과

LG유플러스는 LTE 가입자 증가에 힘입어 올해 1분기 영업이익이 1547억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36.7% 증가했다고 28일 공시했다.

총 매출은 2조5560억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8.1% 줄었다.

LG유플러스는 번호이동 시장 안정화에 따른 마케팅 비용 감소 등의 영향으로 작년 같은 기간보다 영업이익이 큰 폭으로 늘었다고 설명했다.

총매출은 1분기 영업일수의 감소 등 계절적 요인과 단말수익이 줄어들며 소폭 감소했으나 영업부문 매출만 따지면 2조1083억원으로 작년 1분기보다 4.6% 늘었다.

무선 수익은 LTE 가입자 증가에 따른 서비스 수익 증가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4.0% 성장한 1조2986억원을 달성했다.

1분기 LTE 서비스 가입자는 직전 분기 대비 4.0% 증가한 879만 명을 기록했다.

유선 서비스 수익은 작년 1분기보다 4.0% 증가한 7999억 원의 성과를 올렸다. /정문경기자 hm0108@

삼성전자 '헌혈 캠페인' 하루 새 1000명 팔 걷어

삼성전자는 수원 삼성디지털시티에서 28일 하루동안 1000여 명의 임직원이 참여하는 헌혈캠페인을 펼쳤다고 밝혔다.

'희망찾기 헌혈++ Day'라는 슬로건으로 펼쳐진 이번 헌혈 캠페인에서는 삼성디지털시티 곳곳에 헌혈차 18대(일반헌혈 15대, 성분헌혈 3대)가 동원돼 임직원들의 자발적인 헌혈 참여를 도왔다.

/임은정기자 eunj71@

삼성전자 직원들이 28일 수원 삼성디지털시티에서 헌혈 캠페인을 홍보하고 있다. /삼성전자 제공

현대하이스코 1분기 영업익 19.8% 감소

"냉연재고 이익분 제외땐 38.1% 실적 개선된 수치"

현대하이스코는 연결재무제표기준 올해 1분기 779억8200만원의 영업이익을 기록했다고 28일 밝혔다.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따르면 영업이익은 작년 같은 기간보다 19.8% 줄었고 지난해 4분기(913억5800만원) 보다 14.6% 감소했다. 매출액과 당기순이익은 각각 1조226억5900만원과 177억9700만원으로 작년 같은 기간보다 4.2%, 70.5% 줄어든 것으로 집계됐다.

현대하이스코 관계자는 "지난해 1분기에는 냉연재고관련 실현이익 408억원이 영업이익에 포함돼 올해 1분기와 비교했을 때 영업이익이 감소했지만 이 냉연재고 이익분을 제외하면 38.1%실적이 개선된 수치다"며 "냉연재고가 소진되고 재무구조가 안정돼 2분기 실적도 나아질 것으로 전망한다"고 말했다.

구분	2015년 1분기	비중 (%)	증감 (%)
매출액	10,227	100.0	-4.2
매출원가	9,060	88.6	-1.5
매출총이익	1,167	11.4	-20.9

단위 : 억원

/정용기기자 yonggi@

삼성SDI, 1분기 영업익 68억

전기 比 81.7% 감소

삼성SDI는 올해 1분기 매출 1조 8659억원, 영업이익 68억원, 당기순이익 646억원의 실적을 냈다고 28일 밝혔다.

사측에 따르면 전지사업 부문의 계절적 비수기 도래에 따른 영향과 소형전지 주요 고객의 제품 전환 대응으로 인해 전 분기 대비 매출은 442억원(2.3%), 영업이익은 304억원(81.7%) 감소했다.

당기 순이익은 일회성 비용 감소와 지분법 이익 증가 등의 영향으로 흑자전환했다.

1분기 전지사업은 계절적 비수기로 매출이 감소했으며, 케미칼사업은 수익성 중심의 영업전략을 바탕으로 실적이 개선됐다.

전자재료사업은 반도체·디스플레이 소재 등 전 부문이 양호한 실적을 보였다.

삼성SDI는 2분기 전 사업 영역에서 실적이 개선될 것으로 기대했다.

전지사업의 매출 증가와 전자재료 사업의 판매 호조가 실적을 견인할 것으로 전망했다.

전지사업은 소형전지의 경우 주요 고객 스마트폰의 본격 판매로 인해 수요가 늘어날 것으로 예상했다.

높은 점유율을 유지하고 있는 전동공구 등의 Non-IT 제품의 판매도 지속적으로 확대될 것으로 예상했다.

중대형 전지는 순수 전기차(EV)모델의 판매 확대와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자동차(PHEV) 신규 모델 판매 개시로 매출 성장을 내다봤다.

ESS는 유럽 가정용 신제품 출시로 매출이 확대될 것으로 관측했다.

케미칼, 전자재료 사업은 2분기 IT/가전 등 전방산업 수요증가에 따라 1분기에 이어 견조한 실적을 낼 것으로 예상했다.

케미칼 사업은 자동차용 소재 등의 고부가가치 제품 판매 확대, 전자재료 사업은 반도체 및 디스플레이 소재 수요 증가로 매출 성장을 기대했다.

/송정훈기자 sjh@metroseoul.co.kr

LG이노텍, 카메라모듈 앞세워 690억 성과

1분기 영업익 공시
전년 比 9.4%↑

LG이노텍이 비수기 등 어려운 환경속에서 제품 경쟁력을 앞세워 의미있는 성과를 거뒀다.

LG이노텍은 올해 1분기에 매출 1조5413억원, 영업이익 690억원을 기록했다고 28일 공시했다.

전년 동기 대비 매출은 5.7%, 영업이익은 9.4% 증가했다. 전분기와 비교하면 매출은 15.1% 감소했으나 영업이익은 19% 증가했다.

LG이노텍 관계자는 "경쟁 심화와 불확실한 시장 환경에도 선방했다"며 "카메라모듈 중심으로 시장 선도 지위를 확고히 했고 차량 전장부품 등 미래 성장사업 기반을 다진 결과"라고 설명했다.

LG이노텍은 2분기에 전략 고객들의 신모델 출시에 적극 대응하는 한편 신규 고객 확보에 초점을 맞출 예정이다. 특히 고성능 카메라모듈과 고신뢰성 차량 전장부품, 차세대 사물인터넷(IoT) 부품 등 혁신 제품을 앞세워 차별화된 고객가치를 제공한다는 계획이다.

LG이노텍의 광학솔루션사업은 1300만 화소 이상 고화소 제품과 손떨림 보정 기능(OIS) 등이 적용된 고성능 카메라모듈 판매 확대로 전년 동기 대비 21% 증가한 7119억원의 매출을 기록했다. 전분기와 비교하면 계절적 비수기 영향으로 매출이 24% 감소했다.

기판소재사업은 포토마스크 등 디스플레이 소재 분야 신모델 판매 확대로 전년 동기 대비 7% 증가한 매출 3831억원을 기록했다. 전분기 대비 모바일용 기판소재 시장의 계절적 비수기 영향으로 9% 감소했다.

차량 전장부품사업은 차량용 통신모듈, 모터, 발광다이오드(LED) 등 자동차에 특화한 고신뢰성 제품 판매 확대로 전년 동기 대비 20% 증가한 1503억원 매출을 기록했다.

LED사업은 TV 시장 침체에 따른 백라이트유닛(BLU)용 LED 수요 감소로 전년 동기보다 16% 감소했으나 조명용 LED 매출 확대로 전분기 대비 0.5% 증가한 2210억원의 매출을 기록했다. 1분기 조명용 LED 매출만 934억원으로 전년동기 대비 23% 증가했다.

/조한진기자 hjc@

금호타이어, SRC와 안전나눔 캠페인

금호타이어(대표 김창규)는 장애인의 날을 맞아 사회복지법인 SRC(이사장 민오식)와 '금호타이어 안전나눔 캠페인'을 실시했다고 28일 밝혔다.

이날 금호타이어는 경기도 광주에 위치한 SRC에서 김수옥 경영지원담당 상무와 이봉희 SRC후원사업단장이 참석한 가운데 '공감, 행복한 세상' 행사를 열어 SRC 재활학교 학생들의 공감 공모전을 열고 각종 공연과 스크린 영화제 등 다채로운 문화 행사를 가졌다.

금호타이어는 SRC 장애인 재활센터의 직원과 방문자 차량, 환자 수송용 셔틀버스와 업무차량을 대상으로 안전점검을 실시하고, 장애 아동 치료 후원금을 전달했다.

금호타이어는 장애인의 날을 맞아 사회복지법인 SRC를 대상으로 안전나눔 캠페인을 실시했다고 28일 밝혔다. /금호타이어 제공

1952년 창립된 SRC(구 삼육재활센터)는 장애인들의 재활과 자립을 돕는 복지기관으로 유동차량이 하루 500여대에 달한다. 금호타이어는 2013년 4월 SRC와 '안전나눔 캠페인' 후원 협약을 맺고 지금까지 안전나눔 캠페인을 이어오고 있다.

김수옥 금호타이어 경영지원담당 상무는 "장애인의 날을 맞아 차량 안전점검과 문화 프로그램 행사를 마련했으며 앞으로도 장애인들의 복지 향상과 사회참여에 보탬이 될 수 있는 사회공헌 활동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양소리기자 10sound@

풍성한 사운드, 음성은 또렷하게

삼성, 블루투스 헤드셋 '레벨온 와이어리스' 출시

삼성전자가 블루투스 스마트 헤드셋 '레벨 온(On) 와이어리스'(**사진 왼쪽**)와 오디오 기기와 블루투스로 연결 해주는 '레벨 링크(Link)'(**오른쪽**)를 28일 국내 출시한다.

이번에 출시된 '레벨 온 와이어리스'는 야외 통화 때도 또렷한 음성을 전달하는 것이 특징이다. 내장된 6개의 마이크에 주변 소음을 최소화해주는 액티브 노이즈 캔슬레이션 기능 덕분이다. 이중 진동판 설계로 사운드가 풍부할 뿐만 아니라 균형감도 기존 제품보다 뛰어나다고 삼성전자는 설명했다.

컨트롤 패드로 음량 조절, 재생, 멈춤, 곡 넘김 등을 무선으로 편리하게 할 수 있다. 현재 듣는 음악을 다른 '레벨 온 와이어리스' 기기 사용자와 함께 들을 수 있는 사운드 셰어링 기능도 갖췄다. 가격은 27만5000원이다.

'레벨 링크'는 블루투스 기능이 없는 다양한 종류의 유선 오디오 기기를 블루투스 무선 오디오처럼 사용할 수 있게 해준다. 블루투스로 무선 신호를 보내는 기능과 받는 기능을 모두 갖고 있기 때문에 기존에 사용하던 이어폰이나 스피커, TV, 자동차 등에 연결해 사용할 수 있다. 가격은 7만7000원이다.

신종균 삼성전자 IM부문장(대표)은 "두 제품은 삼성전자의 모바일 혁신을 잇는 오디오 제품으로 사용자에게 살아있는 음질과 뛰어난 착용감 그리고 편리한 휴대성과 스타일을 제공할 것"이라고 말했다.

/양성운기자 ysw@

현대重 적자·삼성重 흑자

조선업계 1분기, 성적표 엇갈려

현대중공업이 1분기 1924억원의 영업손실을 기록했다. 삼성중공업은 263억원의 영업이익을 냈다.

현대중공업은 1분기 매출 12조 2281억원, 영업손실 1924억원, 당기순손실 1252억원의 실적을 기록했다고 28일 밝혔다.

전년 동기 대비 매출은 9.6% 줄고 영업손실과 당기순손실은 각각 1.9%, 37.6% 늘어난 수치다.

전 분기와 비교하면 매출은 11.7% 감소하고 영업손실과 당기순손실은 각각 762.8%, 230.3% 증가했다.

사측에 따르면 매출은 조선부문 건조 물량 감소와 정유부문 국제유가 하락으로 감소했다.

영업손실은 일회성 비용인 퇴직위로금 1614억원이 반영되며 적자 폭이 확대됐다.

조선부문에서 반잠수식시추선(semi-rig) 등 특수선박 공정지연으로 인한 추가비용 발생과 해양부문 호주 고르곤(Gorgon) 공사 등 일부 공사에 대해 발주사와 계약변경(change order) 합의가 늦어진 것이 영향을 끼쳤다.

플랜트부문은 발주사와 계약변경 합의로 추가 수익이 발생, 흑자 전환했으며 정유부문에서는 정제마진 호조로 흑자 폭이 확대됐다.

현대중공업 측은 "1분기에는 인력효율화 작업에 따른 일시적 비용인 퇴직위로금이 반영되며 적자 폭이 확대됐다"며 "앞으로 수익성 우선 영업활동과 전 사업부문 점검을 통한 비효율성 제거와 경쟁력 강화로 지속적인 수익 개선을 이뤄내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이날 삼성중공업은 1분기 매출액 2조6099억원, 영업이익 263억원(이익률 1.0%), 당기순이익 109억원의 실적을 냈다고 밝혔다.

전년 동기 대비 매출은 23.9% 줄고 영업이익과 당기순이익은 흑자 전환했다.

전 분기와 비교하면 매출은 15.2%, 영업이익은 74.1%, 당기순이익은 73.7% 감소했다.

사측에 따르면 1분기 매출이 전 분기(3조778억원)에 비해 감소(15.2%)한 것은 드릴십 매출 비중 감소와 조업일수 감소의 영향이다.

하반기에는 대형 해양프로젝트의 분기별 공정 진행률이 증가함에 따라 분기별 매출도 점차 증가할 것으로 삼성중공업은 기대했다.

1분기 영업이익이 전 분기(1017억원, 이익률 3.3%)에 비해 감소한 것은 전체 매출 규모가 줄어든 가운데, 드릴십을 비롯한 고마진 선종의 매출비중이 축소되면서 이익률이 하락했기 때문이라고 사측은 전했다.

/이정필기자 roman@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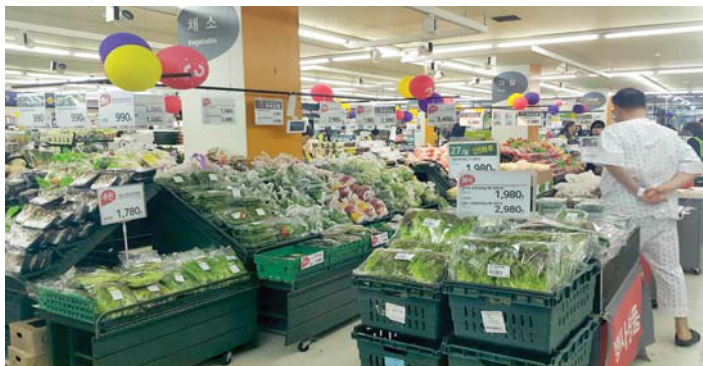
말로만 '상생'하는 이마트 에브리데이

"전통시장 내 신선식품 안 팔겠다" 선포 실상은 과일가게 바로 옆에서 할인판매

골목 상권 침해로 비난을 받아온 신세계그룹(부회장 정용진)이 운영하는 기업형 슈퍼마켓(SSM) '이마트 에브리데이'가 전통시장과의 '상생'을 약속해 놓고 뒤로는 '꼼수'를 부리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정부가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해 대형마트와 기업형 슈퍼마켓 등의 출점을 제한하자 신규 점포 출점을 위해 겉으로만 '상생'이라는 말을 들고 나온 것이다.

신세계는 전통시장과 상생하겠다며 지난해 10월 이마트 에브리데이 점포가 시장 안에 있거나, 시장과의 거리가 100m 이내에 있는 점포 등에서 전통시장과 품목 경쟁을 하는 과일·채소·수산물 등 신선식품을 철수한다고 발표했다. '신세계그룹-전국상인연합회 상생 선포식'을 까지 열며 전통시장 내에 위치한 점포를 상생모델 점포로 탈바꿈시키겠다고 대대적인 홍보를 했다.

하지만 지난 27일 기자가 찾아간 서울 동작구 흑석동 흑석시장 중앙에 자리하고 있는 이마트 에브리데이 흑석점에서는 채소·과일·생선 등을 팔지 않겠다는 신세계의 말이 무색하게 할인 행사가 진행 중이었다.

이마트 에브리데이 흑석점이 '산지 브랜드 총출동'이라는 이름으로 과일과 채소 등을 할인판매하고 있다.

매장 입구에는 '산지 브랜드 총출동'이란 전단지까지 붙어 소비자를 유혹하고 있었다. 매장 내에선 함안의령의 수박·김제 감자·전주 배추·제주 양파 등 채소와 과일 등이 할인 판매중이었다. 양상추와 맛타리 버섯·오이·당근 등은 '단하루 상상초월 파격특가'라는 문구까지 붙었다.

흑석시장 내 상인들은 2011년 말 이랜드 킴스클럽에서 이마트 에브리데이로 점포가 바뀐 뒤 채소와 과일, 생선 등의 판매는 계속돼 왔다고 말한다. 에브리데이 측의 전통시장내 신선식품 철수 발표에 대해선 전혀 모르고 있었다.

흑석시장에서 20년 넘게 채소 가게를 운영 중인 한 상인은 "4년 전 이마트가 들어온 뒤에 채소나 과일을 판매하지 않은 적은 없다"며 "매주 할인 판매도 하고 있다"고 말했다.

에브리데이 인근에서 15년 동안 채소와 과일 장사를 하고 있는 한 상인은 "시장보다 이마트 채소나 과일 가격이 좋다 나쁘다는 말 못하겠지만 할인 행사를 크게 할 때는 가격 경쟁을 할 수 없어 매출이 확실히 줄어 든다"며 어려움을 토로했다.

심지어 이마트 매장 바로 앞 입구에는 20년 넘게 자리를 지켜온 과일 과게도 있었다. 과일 가게 주인은 "채소와 과일 등은 이마트 에브리데이가 오픈할 때부터 계속 판매했다"며 "경기 불황으로 매출이 많이 줄어든 상황에서 쉽지 않은 매일을 보내고 있다. 이렇게 계속되면 서민은 죽고 대기업만 살아남게 될 것"이라고 한숨을 내쉬었다.

/정은미기자 21cindiun@metroseoul.co.kr

/롯데주류 제공

클라우드 '타고난 프리미엄 맥주'

롯데주류 새 광고 선봬

롯데주류(대표 이재혁)가 '타고난 프리미엄 맥주'를 콘셉트로 클라우드 신규 광고를 27일 선보였다.

클라우드의 새 광고는 '올라오라, 맥주에서 클라우드로'라는 메시지를 통해 클라우드가 프리미엄 맥주임을 강조한다.

영상은 고층 건물들의 스카이라인을 배경으로 드레스를 입은 배우 전지현이 사다리를 타고 가장 높은 곳으로 올라가 물로 만들어진 벽 뒤에서 '클라우드'를 꺼내 드는 내용이다. 발효원액에 물을 타지않는 '클라우드'가 프리미엄 맥주임을 상징적으로 표현했다는 게 회사측 설명이다.

클라우드는 국내 라거맥주 중 유일하게 정통 독일식 제조공법인 '오리지날 그래비티(Original Gravity) 공법'을 적용하고 '노블 호프'로 분류되는 체코산 '사츠(Saaz)' 호프와 맥주 본고장인 독일의 최고급 호프인 '사피르(Saphir)', '허스부르크(Hersbrucker)' 등을 조합해 풍부한 거품과 맛을 구현한 프리미엄 맥주다.

롯데주류 관계자는 "국산 프리미엄 맥주시장을 연 '클라우드'의 지난해 광고는 '물타지 않았다'를 키워드로 정통 독일식 맥주 제조공법을 강조했다"며 "출시 2년차에 돌입하면서 프리미엄 맥주로서의 이미지를 강조하는 콘셉트의 광고를 기획하게 됐다"고 말했다.

새롭게 선보이는 동영상은 롯데주류 홈페이지(www.kloudbeer.com) 및 '클라우드' 공식 페이스북(www.facebook.com/kloudbeer), 유튜브(www.youtube.comer/lotteLiquorBG)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정은미기자 21cindiun@

롯데, 농업계와 상생협력 협약 체결

롯데그룹(회장 신동빈)은 28일 소공동 롯데호텔에서 농림축산식품부, 농협중앙회, 동반성장위원회, 대한상공회의소와 함께 농식품 소비·수출 확대와 부가가치 제고를 위한 상생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협약으로 롯데와 농업계는 국산 농산물 소비와 수출 확대, 판로 개척 등을 지원할 계획이다. 특히 생산, 제조·가공, 유통·서비스 등이 융합된 농업의 6차 산업화를 통해 부가가치를 제고할 예정이다. 동반성장위원회와 대한상의는 이들을 지원하는 역할을 맡는다.

롯데는 유통·식품 사업부문의 그룹 역량을 적극 활용한다는 계획이다. 상품용(유통사)에서 원료용(식품사)까지 아우르는 풀 스펙(Full-spec)의 농산물 구매를 통해 농가에는 안정적 판로를 지원하면서 각 그룹사는 원가절감을 달성하는 방안을 연구 중에 있다.

해외의 유통 인프라를 활용해 농식품 수출 확대도 지원할 예정이다. 특히 이슬람 문화권 시장 확대를 위해 국내 농식품업계와 중소업체의 할랄인증을 지원할 계획이다. 롯데가 활발히 사업을 펼치고 있는 인도네시아와의 연계 사업도 검토하고 있다. 롯데그룹 이인원 부회장은 "그룹의 다양한 사업영역과 역량을 활용해 농업계와의 상생협력을 보다 체계적으로 전환할 것"이라며 "해외 인프라를 기반으로 국산 농산물의 해외진출에도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안전조치 완료' 롯데월드몰, 재개장 될까

서울시 현장점검 끝 시민불안 해소 관건

안전논란으로 130여 일 넘게 영업이 정지된 제2롯데월드의 아쿠아리움과 시네마가 안전조치를 강화하고 28일부터 서울시의 현장 점검을 받기 시작했다.

롯데물산 측은 장기간의 영업 중단으로 입점 업체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다며 빠른 재개장을 호소했다. 하지만 시민들의 불안 심리가 해소되지 않는 이상 재오픈 후에도 영업은 쉽지 않을 전망이다.

제2롯데월드 안전관리위원회는 28일 잠실 롯데월드몰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아쿠아리움과 시네마에 대한 안전조치 현장 설명회를 가졌다. 이날 오전 서울시 시민자문단 등이 방문했고 오는 30일에도 현장 점검이 이뤄질 예정이다. 롯데 측은 서울시가 현장 점검에서도 이상이 없다는 결론을 내리면 곧바로 재개장할 계획이다.

롯데물산에 따르면 수족관과 시네마 영업중단으로 롯데월드몰 하루 평균 방문객 수는 개장 초기 10만여 명에서 40%가량 감소한 6만여 명에 그치고 있다. 방문객 감소로 매출 역시 줄었다.

노병용 롯데물산 대표이사는 "안전 문제로 심려와 걱정을 끼쳐 드려 송구스럽게 생각하며 많은 반성을 하고 있다"며 "장기간 영업중단으로 입점 업체들의 고통이 큰 만큼 하루빨리 선처가 있기를 기대한다"고 재개장을 호소했다.

그러나 여전히 시민들의 불안 의식이 높은 만큼 재개장을 하더라도 방문객 수가 늘어나는 데에는 상당한 시일이 걸릴 것으로 예상된다. 롯데그룹 이종현 홍보담당 상무는 "향후 시민들에게 구조적 안전을 체험시키는게 제일 중요하다고 판단하고 있다"며 "서울시에서 본격적 개장을 허락한다면 인근 시민과 저소득층 시민을 먼저 모셔서 안전 여부를 직접 체험할 수 있게 할 것이다. 시민 불안감 해소에도 적극 나서겠다"고 말했다.

안전관리위원회는 지난 12월 아쿠아리움 수조벽 4곳에서 발생한 누수에 대해 미국과 대한건축학회의 방수전문가들과 원인 파악에 나서 벽 실란트 문제를 알아내고 부분 보수를 완료했다. 아크릴과 콘크리트벽을 접착하는 실리콘 시공의 하자로 구조에는 결함이 없는 것으로 조사됐다.

/정은미기자 21cindiun@

목·허리 디스크, 명품 고주파로 10분이면 끝!

강남 초이스병원, 특수 내시경 치료술 주목
수술 없이 바로 일상 복귀… 연예인들에 인기

원조 아이돌 여자 가수로 최근 한창 방송 활동중인 원로 가수 장미화씨는 평소에도 허리가 불편했으나 무리한 방송 스케줄로 요통과 좌측 하지 방사통이 갑자기 악화돼 시술을 권유받았다. 수술에 대한 부담감은 물론 향후 방송활동과 일상생활을 고려해 비수술적 치료를 선택하고 강남초이스 병원에서 고주파 특수 내시경 디스크 시술을 받았다.

담당 주치의인 조성태 병원장은 장씨의 상태를 제 4요추-제5요추 추간판 탈출증과 협착증으로 진단했다. 진료 당일 바로 국소 마취하에서 병변 부위에 직경이 작은 3㎜ 특수 내시경을 정확하게 위치시킨 후 10여 분간의 고주파 디스크 치료술과 신경 치료술을 동시에 시행했다. 탈출된 추간판이 수축, 안으로 들어가면서 제자리를 찾게 하고 요통과 하지 방사통을 호전시켰다.

가수 장미화씨는 시술 후 증상이 바로 호전돼 다음날 방송 활동에 지장이 없었으며 현재 외래 통원하면서 도수 재활 운동 치료를 받고 있다.

장씨를 비롯해 국내 최고 보컬 남자 가수 휘성과 인기 프로그램인 런닝맨의 멤버 가수 김종국씨 등도 비슷한 증상인 요통과 하지 방사통으로 고생하다가 고주파 특수 내시경 디스크 시술를 받은 후 증상이 말끔히 해소돼 현재 방송 활동을 무리없이 잘하고 있다. 이들 외에도 수많은 인사들이 지속적으로 강남초이스 병원에서 고주파 시술 및 디스크 치료를 받고 있다.

비수술에 대한 치료법은 많은 병원에서 시도되고 있고 점차 영역이 넓어지고 있다. 하지만 강남 초이스 병원에서 시행하는 고주파 특수 내시경 디스크 치료술은 일반적으로 시행되는 기존의 일반 고주파 디스크 열치료 또는 고주파 수핵 감압술과는 차원이 다르다. 강남초이스병원만의 특화된 치료법이다. 그 동안의 수많은 치료 경험을 바탕으로 여러 가지 특수 신경 치료 기법과 고주파 열 치료술로 말기 디스크 질환 뿐만 아니라 재발되거나 터진 디스크 또는 협착증이 동반된 디스크까지 치료 영역을 넓히고있다. 때문에 많은 환자들이 시술을 받기 위해 찾고 있다.

강남초이스병원에서 고주파 특수 내시경 디스크 시술을 받은 가수 장미화씨가 조성태 병원장(사진 왼쪽)과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강남초이스병원 제공

강남 초이스 병원은 1년에 수000여 명의 환자가 고주파 디스크 치료를 받고 있다. 일본, 몽골등 해외에서 척추전문외과 의사들이 고주파 시술을 연수받으러 오는등 국내에선 타의 추종을 불허하는 독보적인 고주파 시술 치료 병원이다. 대학병원 교수 출신들로 경험이 많은 숙련된 척추치료 전문원장들이 10여 분이상 고주파 열 치료를 꼼꼼히 세밀하고 정확하게 한다.

무리한 수술이나 시술보다는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비수술 치료 시스템을 연구 발전시켜왔다.

특히 국내에서는 처음으로 2010년 개원 후 현재까지 고주파 수핵 감압술을 주로 시행하고 있다. 이 시술은 국소 마취하에서 시술 영상을 보면서 아픈 병변 부위에 고주파를 정확하게 위치시킨 후 10여 분정도의 고주파 열을 이용하는 간단한 시술이 된다. 탈출된 추간판이 감압, 수축 및 크기가 감소돼 요통과 하지 방사통이 호전된다.

강남 초이스 병원에서 시행하는 고주파 수핵 감압술은 중기 디스크, 증상이 심하지 않은 말기 디스크, 고령의 노인·협착증 환자에게 적용되며, 직경이 작은 여러가지 카테터를 사용한다. 디스크 질환의 증상에 따른 신경 치료술을 적절하게 같이 병행해 더 효과적인 치료가 가능하다.

/이예진기자 green@metroseoul.co.kr

한경희생활과학 "육아휴직도 자유롭게~"

연중기획 가정이 있는 직장

⑩ 한경희생활과학

여성 CEO가 이끌고 있는 한경희생활과학(대표 한경희)은 여성 인재가 성장할 수 있는 업무 환경 조성에 적극 노력하고 있다. 특히 육아와 일을 병행하는 '워킹맘' 지원 제도 등 여성 친화 경영에 앞장서고 있다.

특히 한경희 대표는 평소 여직원들과의 소통을 중시하며 직장 내 고충 해결, 선배 워킹맘으로서 진심 어린 조언과 칭찬·독려를 아끼지 않는다.

실제 한 대표도 고등학생 연년생 형제를 둔 워킹맘이다. 남녀 전직원들에게 출산과 결혼을 장려하며 임신한 여직원에게는 '국력에 보탬이 되는 애국자'라고 축하와 함께 육아휴직을 자유롭게 사용하는 분위기를 만든다.

한 대표는 "직원들에게 직장에서만 성공한 사람이 아니라 가정에서도 성공한 사람이 되기를 바란다고 항상 얘기한다"며 "매주 수요일은 패밀리데이를 통해 정시 퇴근할 수 있도록 하고 생일에는 특별 휴가를 주고 있다"고 말했다.

특히 육아휴직을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다. 복직한 여직원들에게 동일한 조건의 승진, 인센티브를 적용하며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 출퇴근 시차제 등을 적극 도입해 여성이 육아 때문에 경력 단절이 되지 않도록 지원한다. 출산 장려금과 돌 축하금도 지급하고 있다. 탄탄한 복지 덕분에 창립 이래 출산휴가 사용 근로자 복귀율 100%를 기록하고 있다.

한경희생활과학은 남성의 가사나눔을 독려하는 브랜드 캠페인 '여성 해방의 날'을 벌이고 있다. 2013년 여성 해방의 날 캠페인 론칭 기념행사 모습. /한경희생활과학 제공

육아휴직 후 복귀율 100%… 창립 기념일 '여성 해방의 날' 지정

지난 2012년 입사한 이후 두번 육아휴직을 사용했다는 마케팅실 최은정 씨(32·여)는 "승진과 연봉 인상에 동등한 대우를 받아 복직 후에도 최대한 빨리 업무에 적응해 성과를 내기 위해 노력했다"며 "정부에서 마련한 제도를 자유롭게 쓰는 분위기 조성 뿐 아니라 평등한 승진 기회, 휴직 기간 중 충원 등 다양한 것들이 마련되어야 워킹맘과 다른 직원들이 조화롭게 일 할 수 있는 분위기가 만들어지는 것 같다"고 말했다.

'여성 해방의 날' 역시 여성 존중 문화를 이끄는 대표적 제도다.

2013년 처음 시작한 여성 해방의 날은 여성들을 가사 노동으로부터 해방시켜 주자는 취지에서 시작됐다.

창립 기념일인 매년 11월 26일을 여성 해방의 날로 정해 남성의 가사를 독려하고 여성들을 위한 행사를 연다. 참여한 남성직원들은 '좋은 남편 되기 선서식'을 시작으로 부부 고객 초청 행사, 가사 나눔 사연 응모 등을 진행하고 있다

/김수정기자 ksj0215@metroseoul.co.kr

한경희생활과학 가족친화경영

제도
복직 여직원 동일 조건 승진·인센티브 적용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출퇴근 시차제 적용
'여성 해방의 날' 도입
출산 장려금·돌 축하금 지급
평등한 조직문화 시스템 (님 호칭제·HAANa 캠페인·Think Time·칭찬합시다)

공동기획 :

"수평적 조직문화로 여성인재 육성"

남녀 차별 없는 업무 분담·승진·인센티브 지급 규정

한경희생활과학(대표 한경희)은 1999년 설립 이후 주부들의 일 손을 덜어주는 제품들을 출시하면서 사업 규모를 키워왔다. '여성의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한 새로운 라이프스타일을 제공한다'는 비전 아래 1999년 스팀가전, 2009년 살균가전과 화장품, 2011년 주방가전 등 여성을 위한 제품을 선보여 왔다.

여성을 위한 제품 개발 노력은 여성 인재를 육성하고자 하는 기업 문화에서도 엿볼 수 있다. 한경희생활과학의 전직원 중 여성 근로자 비율은 26.2%이며 전원 정규직이다. 여성을 위한 제품군을 만드는 브랜드인 만큼 마케팅실은 62%가 여성이다. 인력 채용과 승진에 남녀 평등을 실천하고 있다. 2009년부터 2012년까지 신입사원 공채의 평균 여성 비율은 56%에 달했다.

한경희생활과학은 평등하고 유연한 조직 문화를 만들기 위한 시스템을 지속적으로 마련하고 있다.

2012년부터는 '님 호칭제'를 사용해 왔다. 직원 제안을 반영해 하급자는 상급자를 호칭할 때 '직책'을, 상급자는 '님'으로 호칭하고 있다. 이를 통해 유연하고 수평적인 조직문화를 안착시키고 있다.

평등한 조직 문화를 조성하기 위한 캠페인도 실시하고 있다. 'HAANa 캠페인'은 '한(HAAN)'과 로마의 토론장인 'Agora'의 합성어로 전 회의 참석자 최소 1회 이상 발언 등 평등하고 창의적인 회의를 위한 원칙을 규정으로 한다. 반기 마다 1회 씩 타 부서 다양한 직급의 직원들로 구성된 프로젝트 팀도 운영한다. 프로젝트 팀은 평소 교류가 적었던 부서의 직원들이 모인 소통의 장이 되고 있다. 활동 기간에 만든 아이디어 제품에 대한 시상도 한다.

육아 휴직 후 복직한 여성 임직원을 포함해 남녀 차별 없는 업무 분담·승진·인센티브 지급 등도 규정하고 있다. 'Think Time' '칭찬합시다 제도' 등은 소통하는 조직 문화를 이끄는 데 큰 역할을 하고 있다.

'Think Time'을 통해선 전 임직원이 그룹을 만들어 티타임을 갖고 자유로운 주제로 아이디어를 구상하는 브레인스토밍을 하고 있다. 매주 금요일 오후 4시부터 5시까지 운영되며 그룹웨어 'Think Time 게시판'에 누구나 다양한 개선을 제안하고 제품 아이디어를 응모할 수 있다.

타부서의 도움을 받았던 사례나 모범적인 직원을 그룹웨어 '칭찬합시다 게시판'에 올리면 월 1회 진행되는 전입직원 대상 월례회의 시 사례를 소개하고 5만원의 포상금을 지급하는 제도도 운영하고 있다.

/김수정기자 ksj0215@

5월 축제 풍성… 오감 자극 나들이객 유혹

모터스포츠·재즈… 다양한 국제 페스티벌 주목

가정의 달 5월은 다양한 축제가 있어 더욱 행복하다. 최근 완연한 봄날씨로 축제를 즐기기 위해 나들이에 나서는 가족들이 많아졌다. 특히 5월에는 모터스포츠부터 도자기, 꽃, 재즈 등 오감을 자극하는 다양한 장르의 국제 페스티벌들이 많아 관람객들의 마음을 설레게 하고 있다.

◆2015 아시아 스피드 페스티벌

스피드를 즐기려면 전남 영암으로 가보자. 다음달 15일부터 17일까지 영암 '코리아인터내셔널서킷'에서 열리는 '2015 아시아 스피드 페스티벌'이 짜릿한 쾌감을 선사할 것이다. 이 페스티벌은 전 세계 20개국 드라이버들과 70 여대의 슈퍼카를 비롯해 총 130여 대의 차량과 1500 명에 달하는 드라이버 및 관계자가 참여하는 대규모 국제 레이싱 대회다.

한국을 비롯해 일본, 중국, 말레이시아, 태국 등 총 6개 서킷에서 개최된다. 대회 개막전과 2라운드가 동시에 진행되는 이번 한국 대회에서는 'GT 아시아'와 '아우디 R8 LMS 컵', '포르쉐 카레라 컵 아시아' 등 3개의 개별 대회를 한 자리에서 만나볼 수 있다.

◆2015 경기세계도자비엔날레

도자기체험을 원없이 해보고 싶다면 경기도 이천으로 떠나자. 세계 최대 규모의 도자비엔날레인 '2015 경기세계도자비엔날레'가 5월 말까지 이천 세라피아, 여주 도자세상, 광주 곤지암 도자공원에서 개최된다.

2년마다 한번씩 열리린 이 행사는 경기도가 주최하고 한국도자재단 등이 주관한다. 전시·학술 프로그램은 물론 지역별 도자기 축제와 맞물려 다양한 볼거리와 즐길 거리가 많다.

① 2015 아시아 스피드 페스티벌(AFOS), ② 2015 경기세계도자비엔날레, ③ 2015 고양 국제 꽃 박람회, ④ 제9회 서울재즈페스티벌 2015.

◆2015 고양 국제 꽃 박람회

꽃향기에 취하고 싶다면 고양 '2015 고양국제꽃박람회'가 제격이다. 이 박람회는 경기도 고양시 호수공원에서 5월 10일까지 개최된다. '꽃과 평화, 신한류의 합창'이라는 주제로 열리며 꽃잎이 물에 닿으면 투명하게 변하는 수정꽃을 비롯한 해외 희귀식물 5종과 세계 25개국의 화훼가 전시된다. 행사장은 세계화훼교류관, 고양신한류합창관 등 4개 실내 전시관과 평화누리정원, 사랑고백정원, 어린이들이 자연 속에서 꽃과 식물 공부도 할 수 있는 '개구쟁이공원' 15개 테마 별 정원으로 구성 되어 있다.

◆제9회 서울재즈페스티벌 2015

재즈를 좋아하면 '서울재즈페스티벌'에 참여하자. 차별화된 기획과 프로그램 구성으로 호주, 일본 등 해외 에이전시와 공연기획자들로부터 페스티벌 라인업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을 받고 있는 아시아에서 손꼽히는 페스티벌 중 하나로 평가 받고 있다.

이번 '제 9회 서울재즈페스티벌 2015'은 5월 23~25일까지 3일간 서울 송파구 올림픽공원 88잔디마당, 체조경기장, SK핸드볼 경기장, 수변무대 등 야외공연장과 실내 공연장에서 열린다. 칙 코리아, 허비 행콕, 미카, 그레고리 포터 등 국내외 최고의 아티스트 약 60여 팀이 참여한다.

/최치선기자 chisunti@metroseoul.co.kr

운동복도 세련되게… '애슬레저 룩' 뜬다

유니클로, 합리적 가격 기능성 제품 선봬

일상생활에서 가벼운 운동으로 몸매를 가꾸고 스트레스를 해소하려는 사람들이 늘면서 운동복을 세련되게 연출하는 '애슬레저(Athleisure)룩'이 각광받고 있다.

운동(Athletic)과 레저(Leisure)의 합성어인 애슬레저룩은 편안한 일상복부터 가벼운 스포츠웨어까지 폭넓은 스타일링을 할 수 있어 인기가 높다. 패션업계는 이러한 트렌드에 맞춰 다양한 기능을 갖춘 세련된 캐주얼 아이템을 출시하고 있다.

글로벌 SPA(제조·유통·판매 일괄) 브랜드 유니클로는 애슬레저룩에 어울리는 다양한 아이템들을 선보이고 있다. 유니클로는 쾌적한 착용감과 뛰어난 기능성을 갖춘 제품을 합리적인 가격대에 선보여 골프웨어를 비롯해 가격이 높은 스포츠웨어와 차별화하고 있다.

남성용 '드라이 피케 폴로셔츠'(사진)는 스포티하면서도 세련된 일상복을 입고 싶어하는 남성들 사이에서 인기를 끌고 있다. 드라이 피케 폴로 셔츠는 땀을 빠르게 건조하는 드라이 기능을 갖춰 야외활동뿐만 아니라 무더운 사무실 등 내부에서도 쾌적한 착용감을 선사한다. 심플한 무지를 비롯해 라인·디자인·포켓·프린트·보더 등 총 6가지 타입으로 구성됐다. 가격은 2만9900원.

남성용 상의 '드라이 EX 풀짚파카'·'드라이 EX T'도 야외 활동 시 입기 무난하다. 두 제품 모두 특수한 입체 짜임 구조의 소재인 Dry-EX 소재로 만들어져 한 층 더 탁월한 드라이 기능을 제공하며 착용감이 뛰어나다. 각 2만9900원, 1만9900원이다.

유니클로 관계자는 "날씨가 더욱 따뜻해지면서 소비자들이 일상 생활과 야외 활동에서 두루 착용할 수있는 의류를 구입하는 추세가 증가하고 있어 일상복과 운동복의 경계가 허물어진 '애슬레저룩' 열풍은 당분간 지속될 전망이다"고 말했다.

/김수정기자 ksj0215@

비피더스 마시면 하지원 사인책이

푸르밀, 출시 20주년 행사

유제품 전문기업 푸르밀(대표 남우식)은 지난 24일 '비피더스' 전속 모델 하지원 팬사인회를 롯데마트 잠실점에서 했다고 28일 밝혔다.

이번 팬사인회는 푸르밀 '비피더스' 출시 20주년을 맞아 기획됐다. 푸르밀 제품 구매 고객을 대상으로 하지원의 친필사인이 담긴 저서를 받을 수 있는 경품이벤트를 벌였다. 팬사인회 행사 당일 롯데마트 잠실점의 푸르밀 제품 판매액은 기부될 예정이다.

한편 비피더스는 1995년 사과 출시를 시작으로 블루베리·포도·고칼슘 지방제로 플레인·세븐베리 등 8종이 출시됐다. 2013년 발효유브랜드 점유율 1위를(AGB닐슨) 기록하며 대표 발효유브랜드로써 입지를 더욱 확고히 하고 있다.

/김보라기자 bora6693@

안전보건공단, 지자체 안전도시 만들기 지원

하남시와 업무협약

안전보건공단(이사장 이영순, 이하 '공단')이 경기도 하남시(시장 이교범)와 업무협약을 맺었다. 이번 협약은 지자체의 안전보건 수준을 높이기 위한 노력의 일환이다. 공단 이영순 이사장은 27일 경기도 하남시청에서 이교범 시장과 '산업재해예방을 위한 업무협약'을 맺고 지역 내 일터의 안전성을 높이기 위한 공동 노력을 전개하기로 했다.

이영순 안전보건공단이사장(왼쪽)과 이교범 하남시장.

협약은 산업현장의 안전성을 확보함으로써 지역의 안전보건 수준을 높이고, 안전문화 확산을 통해 안전도시 기반을 구축하기 위해 서다. 공단은 협약에 따라, 하남시의 협조로 시가 발주하는 건설현장, 신규 설립공장, 공공근로 현장에 대한 안전수준을 높일 방침이다.

시가 발주하는 대형 건설현장에 대해서는 위험성 평가 등 기술지원 실시로 재해 발생의 위험을 예방하고, 장마철 등 취약시기에는 공동 안전점검에도 나선다.

/최치선기자 chisunti@

강강술래 "가정의 달 선물 알뜰구매 하세요"

보양식·영양간식 세트 최대 50% 할인 판매

외식문화기업 강강술래(대표 최종만)는 고객들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보양식과 영양간식 세트를 파격 할인 판매한다.

이달 30일까지 온라인쇼핑몰(sullaimall.com)과 전화주문(080-925-9292)을 통해 한우사골곰탕(500㎖·3팩·6인분)과 육개장(500㎖·3팩·6인분), 갈비탕(500㎖·3팩·6인분)으로 구성된 '삼동이세트'(사진)를 50% 할인된 3만원에 판매한다.

같은 기간 영양간식으로 구성된 럭키A세트(모짜렐라돈가스 1.44kg+칠칠한우떡갈비360g+흑임자한돈너비아니360g)는 4만5600원, 럭키B세트(통등심돈가스1.44kg+칠칠한우떡갈비360g+흑임자한돈너비아니360g)는 4만2000원에 각각 40% 할인 판매한다.

매장 인기메뉴인 한우불고기(1kg)와 한돈양념구이(750g)로 구성된 캠핑세트는 44% 할인된 4만3000원, 갈비맛 쇠고기육포박스(10봉)는 40% 할인된 3만6000원에 판매한다.

늘봄농원점(031-965-2300)은 이달 30일까지 소고기 구이류를 시키면 한우불고기 포장상품을, 돼지고기 구이류를 시키면 돼지양념 포장상품을 결제 시 주문한 양만큼 무료 증정한다. /김보라기자

백화점 매장직원 "알리페이가 뭐예요?"

르포 알리페이 결제 첫날 롯데百 가봤더니

이재용 vs 마윈, 中 선방했지만 이용실적은 미미

지난 27일 서울 중구 소공동 롯데백화점 본점은 두 손에 쇼핑백을 쥔 중국인 관광객들로 북적였다.

알리페이 결제가 처음 시작된 날이다. 알리페이 결제가 이뤄졌냐는 질문에 매장직원은 "알리페이가 뭐예요?"라고 되물었다.

또한 중국인들의 결제를 돕는 각층 포스에서도 "알리페이로 1건을 결제했다"거나 "윗층에서 알리페이로 결제한 사람이 있더라"는 답변을 들었다.

마윈 회장이 이끄는 중국 알리바바그룹의 '알리페이'가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삼성페이'보다 먼저 한국 시장에 상륙했지만 홍보·교육 부족으로 실결제가 많이 이뤄지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롯데백화점은 본점, 잠실점, 에비뉴엘월드타워점, 김포공항점, 부산본점, 아울렛 서울역점, 파주점 등 중국인 관광객이 많이 찾는 점포 7곳에 알리페이 결제 시스템을 도입했다.

이전에도 면세점에서 알리페이를 통한 결제가 가능했지만 백화점에서 중국인들이 알리페이를 통해 결제할 수 있게 되면서 한국 내 핀테크 시장이 본격적으로 개화할 전망이다.

롯데백화점 관계자는 노동절에 중국인 고객이 많이 방문할 것으로 예상돼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알리페이 결제 시스템을 마련했다고 전했다.

알리페이 결제 시스템이 도입된 롯데백화점 각층 포스에는 알리페이로 구매 가능하다는 안내 문구가 적혀있다.

롯데백화점은 알리페이를 통해서 이전보다 결제속도가 빨라질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알리바바 그룹의 알리페이는 중국 내 시장점유율 1위를 기록하고 8억명의 가입자를 두고 있다.

한국을 방문하는 중국인 관광객이 증가하는 추세에서 작년에는 612만명이 한국을 찾았다.

따라서 한국을 방문한 중국인들의 알리페이 결제가 많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롯데백화점의 알리페이 결제는 각층에 있는 포스에서 가능하다.

알리페이 결제를 담당한 롯데백화점 본점 직원은 "결제방법이 편하고 빠르다"고 전했다.

현재 결제카드로 많이 쓰이는 중국의 은련카드는 포스에서 카드를 선택하고 긁은 후 비밀번호를 누르고 서명을 해야한다.

알리페이 결제는 스마트폰에 애플리케이션을 다운받고 은행이나 신용카드 계좌를 연결한 후 애플리케이션의 바코드로 이용대금을 결제하는 방식이다.

중국인 관광객 팡슌칭(40)은 "중국인들이 알리페이 결제를 많이 할 것 같다"고 분위기를 전했다.

삼성전자 역시 삼성페이로 핀테크 시장에 참여한다.

삼성전자는 올해 2월 미국 모바일 결제 솔루션 업체 루프페이를 인수하고 지난 10일 삼성페이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갤럭시S6·S6 엣지를 선보였다.

삼성페이는 NFC 방식과 마그네틱 보안 전송 방식을 지원해 일반 신용카드 결제기에서도 결제할 수 있다.

하지만 아직 삼성페이로 결제할 수 없다. 오는 7월 서비스가 시작될 예정이기 때문이다.

현재 삼성페이를 이용할 수 있는 스마트폰은 갤럭시S6·S6 엣지 뿐이다.

/임은정기자 eunj71@metroseoul.co.kr

기사제보=02)721-9861

"혁신에 혁신 거듭해야"

구본무 LG 그룹 회장 '고객 가치' 중요성 강조

"고객 가치의 관점에서 제대로 혁신하는 기업만이 경쟁에서 살아남는다."

구본무(사진) LG 그룹 회장이 28일 여의도 LG트윈타워에서 열린 4월 임원세미나에서 또다시 고객 가치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구 회장은 매년 고객 가치를 핵심 키워드로 내걸었다.

구 회장은 이날 지금의 세계경제와 기업환경에 대해 "저성장이 지속되는 어려운 경영 환경 속에서 전세계 모든 기업들이 더욱 치열하게 경쟁하고 있다"고 전제하고 "고객 가치의 관점에서 제대로 혁신하는 기업만이 경쟁에서 살아남는다"고 역설했다.

이어 "변화를 따라가는데 급급하거나 혁신을 위한 혁신에 머무르는 기업들은 도태되는 것이 냉엄한 현실"이라며 "관행에서 벗어나, 새롭게 생각하고 뼈를 깎는 노력을 기울여 변화와 혁신을 주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구 회장이 고객가치를 강조한 것은 LG가 혁신에 혁신을 거듭하며 다양한 분야에서 시장을 선도하더라도 고객 가치 창출에 실패하면 그 성과는 빛을 보지 못할 것이라는 점을 지적한 것으로 보인다.

이에 구 회장은 "그동안 우리가 추진해온 사업전략과 혁신 활동을 시장 선도 관점에서 철저히 짚어보고, 고객 가치 경쟁에서 승리하기 위한 계획과 구체적인 실행 방안을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당부했다.

한편 이날 임원세미나에서는 홍익대 경영대학 김한얼 교수가 '경쟁 패러다임의 변화와 대응'을 주제로 강연했다.

김 교수는 강연에서 과거의 경쟁이 제품이나 프로세스 혁신 중심이었다면 향후의 경쟁은 비즈니스 모델 혁신을 중심으로 전개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그는 이러한 변화를 주도하는 기업들은 뛰어난 자원을 보유하고 있지 않음에도 모방이 어려운 비즈니스 모델을 바탕으로 경쟁우위를 확보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그는 과거의 성공방식 등 모범적인 경영 원칙들은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을 만들기 위한 혁신을 방해할 수도 있으므로, 신사업 추진과 같이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을 만들기 위해서는 경쟁 전략에 있어서도 새로운 접근이 요구된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임원세미나에는 구 회장을 비롯해 강유식 LG경영개발원 부회장, 구본준 LG전자 부회장, 이상철 LG유플러스 부회장, 차석용 LG생활건강 부회장, 박진수 LG화학 부회장 등 최고경영진과 임원 300여명이 참석했다. /양성운기자

갤럭시S6 시리즈·G4 등 하드웨어 성능 강화

업계, 클라우드 서비스 확대 조짐

스마트폰 하드웨어 성능이 갈수록 향상되면서 자연스럽게 콘텐츠를 저장할 수 있는 공간에 대한 중요성도 높아지고 있다.

특히 스마트폰 카메라는 DSLR 성능급까지 진화해 고해상도 사진과 동영상 촬영도 가능하다. 고용량 콘텐츠를 제작할 수 있게 된 셈이다.

이에 국내 전자·IT업계의 양대 산맥인 삼성·LG전자가 스마트기기 사용자들의 편의성을 높이기 위해 클라우드 서비스를 강화하고 있다. 삼성전자는 마이크로소프트(MS)와 LG전자는 구글과 손잡는 경쟁 구도로 재편됐다.

삼성전자는 지난 3월 자사 스마트폰과 태블릿에 MS의 모바일 서비스를 기본 탑재하겠다고 발표했다. 삼성전자는 갤럭시S6와 갤럭시S6엣지를 시작으로 주요 스마트 기기에 클라우드 기반 메모 서비스인 원노트와 저장 서비스인 원드라이브, 인터넷 음성·영상 통화 서비스 스카이프 등 MS의 주요 서비스를 탑재했다.

이에 따라 갤럭시S6와 갤럭시S6엣지 사용자들은 2년간 총 115GB(기본 15GB+추가 100GB)의 가상공간에서 데이터를 보관하고 내려받을 수 있다.

지난 2012년 'LG 클라우드' 서비스로 소비자들의 호응을 이끌어낸 LG전자는 구글과 손을 잡고 클라우드 서비스를 강화한다.

28일 LG전자 관계자는 "LG 클라우드 서비스를 통해 다운로드 수치를 측정한 결과 사용자가 늘어나고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라며 "구글의 클라우드 서비스도 LG전자 스마트폰 사용자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LG전자가 운영중인 크라우드 서비스 이용자 증가에 따라 채널을 확대해 사용자들의 편의성을 극대화 하겠다는 전략이다. 이 관계자는 "G4 구매시 구글 드라이브를 통해 2년간 100GB의 콘텐츠를 저장할 수 있다"고 말했다. /양성운기자 ysw@

LG전자 '올레드 TV' 한달만에 3000대 팔았다

LG전자가 압도적인 화질을 갖춘 올레드 TV로 국내 프리미엄 TV 시장 점유율을 높이고 있다.

28일 LG전자에 따르면 올레드 TV는 최근 국내시장에서 한 달 판매량 3000대를 돌파하며 가파른 성장을 기록하고 있다. LG전자는 지난해 5종이었던 올레드 TV 모델 수도 올해 2배 이상인 10여 종으로 늘리며 소비자 선택의 폭을 넓혔다.

올레드 TV의 인기 요인은 압도적인 화질과 얇은 두께의 혁신적인 디자인이다. 올레드 TV는 백라이트 없이 스스로 빛을 내기 때문에 색을 정확하게 표현할 수 있다. 이 제품은 어느 각도에서 보아도 색의 변화가 거의 없고, 기존 LCD TV와 달리 완벽한 블랙을 구현할 수 있다. 이 때문에 올레드 TV는 현존하는 TV 가운데 가장 자연에 가장 가까운 색을 구현한다.

예술작품을 연상시키는 아트 슬림 디자인은 제품 두께가 5㎜대로 거실 인테리어의 품격을 높여준다.

LG전자는 국내에서 올레드 TV를 포함해 측면 가장 얇은 부분의 두께가 어른 손가락 한 마디 정도로 얇은 20㎜ 이하 TV에 대해 가격을 낮추고 혜택을 늘린 '미리미리(mm) 페스티벌'을 열고 있다.

LG전자는 내달 가정의 달을 맞아 새로운 프로모션과 다양한 혜택으로 올레드 TV의 시장 확대를 더욱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LG전자 77인치 울트라 올레드 TV.

이인규 LG전자 TV·모니터사업부장(전무)은 "올레드 TV로 프리미엄 TV 시장을 선도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양성운기자

기교없는 담백함, 그 안의 폭발력

영화 '차이나타운' 김고은

"저는 항상 부담스러운 장면이 영화에 있었잖아요(부끄러운 듯 웃음). 그럴 때마다 항상 지칠 때까지 고민을 해요. 혼자서 지지고 볶다 촬영 당일이 되면 '나 할 만큼 했다. 안 되면 밤새면 되지' 이런 마음으로 내려놓고 촬영을 하게 되죠(웃음). 그러다 보면 연기에 집중이 되는 것 같아요."

오는 29일 개봉하는 '차이나타운'(감독 한준희)의 마지막 장면은 김고은(23)이 왜 20대 여자 배우들 사이에서 유난히 빛을 발하는지를 잘 보여준다. 선배 배우인 김혜수를 상대로 슬픔과 분노가 뒤섞인 감정을 온전히 보여주는 그의 표정과 몸짓은 영화의 주제를 관통하며 관객에게 깊은 여운을 남긴다. 김고은 스스로도 모든 걸 내려놓고 표현한 장면이다.

김고은의 연기는 담백하다. 그는 과잉되지 않은 감정으로 꾸밈없이 캐릭터를 소화한다. 그렇게 차곡차곡 쌓인 감정이 기에 폭발할 때의 진폭도 여느 배우들보다 클 수밖에 없다. '은교'에서도 '몬스터'에서도 김고은은 늘 그렇게 연기를 해왔다.

'차이나타운'에서 김고은은 또 다른 소녀 일영을 만났다. 지하철 코인로커에 버려져 거지들의 손에서 자라난 소녀다. 차이나타운에 팔려온 일영은 부모 없는 자식들을 거둬 기르는 보스 같은 존재 엄마(김혜수)를 만나 '쓸모 있는 자만이 살아남는다'는 세상의 엄혹한 생존법칙을 따르게 된다.

김고은이 '차이나타운' 시나리오를 받게 된 건 제작사 폴룩스픽쳐스의 안은미 대표와의 인연을 통해서였다. 김고은이 '은교'에 출연할 당시 프로듀서가 안은미 대표였다. "멜로영화 노래를 부를 때였어요(웃음). 그때 대표님이 '멜로인지는 모르겠지만 멜로일 수도 있다'며 시나리오를 주셨어요. 한 폭의 그림을 보는 것 같더라고요. 먹먹하고 울컥하게 만드는 무언가가 있었죠. 그런 끌림 때문에 덥석 물게 됐어요."

김고은은 일영을 "자신의 세세한 감정에 귀를 기울이거나 속마음을 깊이 들여다보지 않는" 인물로 받아들였다. 엄마를 비롯해 한 식구처럼 지내는 우곤(엄태구), 홍주(조현철), 쏭(이수경), 그리고 엄마가 시킨 일 때문에 만나게 되는 석현(박보검) 등 다른 인물을 만날 때마다 태도와 심리도 다르게 드러나기를 바랐다. 한 가족이지만 그런 사실마저 굳이 인식하지 않고 살아가는 인물, 그렇게 차이나타운에서 살아남은 인물이 곧 일영이라는 생각에서였다.

영화 속 갈등의 계기가 되는 석현과의 관계는 보다 신중한 태도로 접근했다. "남녀 간의 멜로나 사랑처럼 보이면 안 된다는 생각이 강했어요. 일영이 석현을 바라보는 눈빛이 점차 달라지잖아요. 그것마저도 무엇 하나로 단정 지을 감정선이 아니라고 생각했어요." 일영이 석현의 손을 잡고 도망가는 짧은 신도 사실은 오랜 고민 끝에 완성된 장면이다. 그 정도로 김고은은 조심스럽게 일영의 내면에 다가가 그 감정을 온전히 느끼며 표현했다. 주먹을 휘두르는 작은 액션 연기에서도 일영의 삶이 그대로 녹아있기를 원했다.

먹먹함·울컥함에 끌려 선택한 영화
신중한 태도로 감정에 다가가 연기
여인이 된 모습 언젠가 찾아오겠죠

'은교'의 은교, '몬스터'의 복순, 그리고 '차이나타운'의 일영까지 김고은이 지금까지 쌓은 필모그래피에는 여자보다는 소녀에 가까운 캐릭터가 중심에 있다. 의도한 선택은 아니었다. 김고은은 "차근차근 하다 보면 여인으로 넘어갈 시점이 분명히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우리는 알고 있다. 기교를 부리지 않는 그의 연기가 이런 캐릭터들과 만나 높은 시너지를 내고 있다는 사실을 말이다.

올해로 데뷔 4년차지만 김고은은 "데뷔 때와 크게 변한 건 없다"며 웃었다. 그 웃음 속에 은교와 복순과 일영의 모습이 겹쳐 있었다. '협녀, 칼의 기억'과 '성난 변호사'의 개봉을 기다리고 있는 그는 이제 '계춘할망'의 촬영에 들어간다. 담백하지만 폭발력 있는 연기처럼 그의 필모그래피 또한 넘쳐남 없이 차곡차곡 쌓이고 있다. 우리는 동시대를 대표할 배우의 성장을 지켜보고 있다.

/장병호기자 solanin@metroseoul.co.kr

사진/라운드테이블(김민주)

star bag

단국대 뮤지컬학과 초빙 교수

가수 겸 뮤지컬 배우 **옥주현**이 단국대학교 공연영화학부 뮤지컬학과 초빙 교수가 됐다. 매 학기 1회~2회 특강을 한다. 첫 특강은 5월 13일 단국대 죽전캠퍼스에서 진행된다. 그는 발성의 기초와 뮤지컬 넘버의 드라마적 해석과 효과적 표현을 주제로 강연한다. 옥주현은 뮤지컬 '엘리자벳'에 3회 연속 캐스팅돼 공연을 앞두고 있다.

가족액터스와 전속 계약

배우 **김서라**가 가족액터스와 전속계약을 체결했다. 가족액터스 측은 "김서라는 지금까지 보여준 것보다 향후 보여줄 것이 더 많은 배우다. 앞으로의 연기 활동을 전폭 지원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현재 KBS2 일일극 '오늘부터 사랑해'에서 귀여운 며느리 한동숙으로 분해 열연 중이다.

김성규 솔로 2집 프로듀싱

넬의 김종완이 그룹 인피니트 **김성규**의 솔로 2집 '27' 전체를 프로듀싱했다. 특히 1번 트랙 '27'은 김종완이 김성규에게 선물한 곡이다. 웅장한 신스 사운드와 보컬을 왜곡시켜 만든 조각들로 시작을 알리는 노래다. 김성규는 내달 일본 아레나 투어 앵콜 공연 후 솔로 활동에 나선다.

모다페2015 홍보대사 위촉

엠넷 '댄싱9' 블루아이 마스터 **이용우**가 제 34회 국제현대무용제 MODAFE(모다페) 2015 홍보대사로 위촉됐다. 한국현대무용협회는 "현대 무용계의 원조 아이돌이라 할 수 있는 그가 최근 방송에서 직접 진두지휘하며 안무를 하는 등 현대무용을 적극적으로 알리는 모습이 인상적이었다"고 위촉 배경을 설명했다.

어버이날 효도 선물은 역시 '디너쇼'

장윤정·태진아·주현미·심수봉 등 발라드·재즈 등 다양한 장르 마련

다음달 어버이 날을 맞아 부모님과 함께 디너쇼를 가보는 것은 어떨까. 디너쇼가 어르신들만을 위한 공연이라고 단정 짓기엔 풍성한 레퍼토리를 자랑하는 가수들의 공연이 관객을 기다리고 있다.

'최연소 디너쇼 가수' 장윤정은 다음달 7, 8일 이틀간 서울 여의도 63빌딩 컨벤션센터 그랜드볼룸에서 '2015 장윤정 효(孝) 디너쇼'를 개최한다.

2005년 첫 디너쇼 이후 매진 행렬을 이어가고 있는 장윤정의 디너쇼는 다채로운 프로그램으로 유명하다. 이번 공연에서 장윤정은 '초혼' '사랑아' '꽃' '어머나' '올레' '장윤정 트위스트' '어부바' 등 히트곡 릴레이를 비롯해 최연소 디너쇼 가수다운 톡톡 튀고 재치 넘치는 입담으로 관객과 호흡할 계획이다.

'트로트 황제' 태진아 역시 내달 7, 8일 이틀간 서울 양재동 더 케이(The K)호텔 그랜드볼룸에서 '어버이날 효도 디너쇼'를 진행한다.

이번 공연에서 태진아는 MBC '나는 가수다'에 출연했던 적우와 함께 추억의 히트곡 '여고시절'을 열창할 예정이다. 아울러 '옥경이' '거울도 안 보는 여자' '노란 손수건' '동반자' '사모곡' '바보' '사랑은 장난이 아니야' 등 수많은 히트곡 릴레이를 선보인다. 태진아는 최근 아이돌그룹 M.I.B 멤버 강남과 듀엣곡 '전통시장'을 발표하는 등 왕성하게 활동 중이다.

'대한민국 대표 디바' 심수봉은 다음달 7일 서울 그랜드힐튼호텔 컨벤션홀에서 '2015 심수봉 어버이날 디너쇼'로 관객과 만난다.

어버이날과 연말 등 꾸준히 디너쇼를 열어온 심수봉은 이번 공연에서 자신의 음악적 역량을 모두 쏟아부을 계획이다. '남자는 배 여자는 항구' '사랑밖에 난 몰라' '백만송이 장미' 등 주옥같은 히트곡들을 트로트, 재즈, 포크, 발라드 등 여러 장르로 재해석해 부른다. 실력파 빅밴드와 함께 꾸미는 웅장하고 화려한 무대는 물론 심수봉이 직접 재즈 피아노, 통기타를 연주하는 특별한 무대도 준비돼 있다.

지난해부터 데뷔 30주년 기념 전국 투어 'THE 주현미 SHOW'를 이어오고 있는 주현미도 다음달 8일 서울 롯데호텔월드 크리스탈볼룸에서 디너쇼를 연다.

주현미는 이번 공연에서 '비내리는 영동교' '신사동 그 사람' '짝사랑' '잠깐만' 등 추억의 히트곡은 물론 30주년 기념 앨범에 수록된 신곡도 선보일 계획이다. 주현미는 신곡을 통해 정통 트로트를 넘어 색다른 음악에 도전하며 변신을 거듭하고 있다. 세대와 장르를 넘나드는 신곡으로 '추억의 가수'가 아닌 '현재진행형 가수'로 거듭났다는 평가를 받기도 했다.

/김지민기자 langkim@metroseoul.co.kr

서울환경영화제에 독자 초대합니다

메트로신문이 5월 7일 개막하는 제12회 서울환경영화제에 독자들을 초대합니다.

서울환경영화제는 아시아 최대 규모의 국제환경영화제로, 올해는 광화문 일대에서 개최됩니다. 씨네큐브, 인디스페이스, 서울시민청에서의 영화 상영과 함께 서울역사박물관 광장에서 펼쳐질 다양한 이벤트를 통해 시민들이 쉽게 접근하고 즐길 수 있는 축제의 성격을 강화했습니다.

개막작은 '사랑해, 파리' '뉴욕 아이 러브 유'에 이은 사랑의 도시 시리즈 세 번째 작품인 '사랑해, 리우'이고, 47개국에서 온 113편이 상영됩니다. 환경을 주제로 한 극영화와 다큐멘터리는 물론 아이들을 위한 애니메이션까지 전 연령대가 감상할 수 있는 영화들을 한 자리에 모았습니다.

메트로신문은 독자 100명(1인 2매)에게 티켓 교환권을 증정합니다. 참여를 원하는 독자는 5월 3일까지 메트로신문 홈페이지(http://www.metroseoul.co.kr)에서 진행하는 이벤트에 참여하면 됩니다. 모바일 티켓 교환권이 제공되기 때문에 휴대전화 번호를 남겨야 합니다. 당첨자는 5월 4일 발표되며 5월 5일 휴대전화 문자 서비스를 통해 모바일 티켓을 받을 수 있습니다.

◆ 메트로신문 독자초대 이벤트

- 영화제 기간 : 5월 7~14일
- 영화제 장소 : 광화문 씨네큐브, 서울역사박물관 광장 일대, 인디스페이스, 서울시민청 바스락홀
- 신청마감 : 5월 3일

---

film review

/장병호기자 solanin@

■ 비비안 마이어를 찾아서

삶 대신 사진을 남긴 그녀

죽음 뒤 SNS로 유명세 탄 미스터리한 사진작가

시작은 우연히 발견된 필름이었다. 사진작가이자 역사가인 존 말루프는 2007년 역사책에 실을 오래된 사진을 찾던 중 경매장에서 의문의 상자를 구입했다. 380 달러에 낙찰받은 상자 속에는 인화되지 않은 15만장의 필름이 들어있었다. 호기심에 필름을 현상한 존 말루프는 뜻하지 않은 발견을 사람들에게 알리고자 SNS에 사진을 올리기 시작한다. 무명의 사진작가 비비안 마이어의 존재가 세상에 모습을 드러내는 순간이었다.

1926년에 태어난 비비안 마이어는 2009년 세상을 떠나기 전까지 늘 목에 카메라를 걸고 자신이 바라보는 세상의 풍경을 필름에 담았다. 그러나 그녀는 자신이 찍은 사진을 남들에게 보여주지 않고 세상을 떠났다. 그렇게 남겨진 필름들은 존 말루프를 만남으로써 세상과 만나게 됐다. 사람들은 생전 주목 받지 못한 그녀를 뒤늦게 궁금해 하기 시작했다. '비비안 마이어를 찾아서'는 바로 이 미스터리한 사진작가 비비안 마이어의 생애를 추적하는 다큐멘터리다.

영화 '비비안 마이어를 찾아서'. /오드 제공

존 말루프 감독은 궁금증을 풀기 위해 비비안 마이어가 생전에 함께 했던 사람들을 찾아간다. 비비안 마이어가 유모로 일하면서 만났던 사람들의 증언을 통해 미스터리로 남겨져 있던 비비안 마이어의 삶은 서서히 형체를 나타내기 시작한다. 그러나 사람들의 증언은 때때로 일치하지 않는다. 누군가는 그녀를 친절했던 유모로 기억하지만 또 다른 누군가는 정반대의 기억으로 그녀를 떠올린다. 제각각인 증언 속에서 일치하는 것은 단 하나, 비비안 마이어는 세상과의 접촉을 피한 채 자신만의 세상에서 살아온 외로운 인물이라는 사실이다.

존 말루프 감독은 영화 중반에 이르러 고민에 빠진다. 자신이 비비안 마이어의 사진을 공개한 것이 그녀의 뜻을 거스르는 것일 수도 있다는 생각에서다. 어렵게 찾아간 비비안 마이어의 고향에서 그녀가 사진을 세상에 보여주고 싶어 하는 마음이 있었음을 확인한다. 그럼에도 비비안 마이어가 왜 세상과 단절된 삶을 살았는지에 대해서는 답을 찾지 못한다.

흥미롭게 출발한 영화지만 영화를 보고 나면 왠지 모를 씁쓸함이 남는다. 그 씁쓸한 정서에서 비비안 마이어를 향한 영화의 진심어린 마음을 엿볼 수 있다. '비비안 마이어를 찾아서'는 끝내 비비안 마이어를 찾지 못한다. 대신 그녀가 남긴 사진의 아름다움을 전하고 있다. 전체 관람가. 4월 29일 개봉.

허영만 '각시탈' 한정 복간

'허영만전 – 창작의 비밀' 전시 사무국이 다음달 17일까지 소셜 크라우드 펀딩 플랫폼 '텀블벅'을 통해 허영만의 초기작이자 대표작인 '각시탈' 원화를 한정 복간한다고 28일 밝혔다.

사무국은 펀딩으로 시리즈의 시작 3편을 한정 수량인 총 1000세트로 복간해 출판할 예정이다. 펀딩 참여 희망자는 1만5000원부터 60만원까지 자유롭게 후원금을 지정할 수 있다.

이번 복간은 29일부터 7월 19일까지 예술의전당 한가람미술관에서 열리는 '허영만전'을 기념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유리기자

이정진과 임수향.

이정진·임수향 '은하'로 조우

배우 이정진·임수향이 감성 멜로 '은하'(감독 임진승)로 조우한다.

'은하'는 교도소라는 제한된 공간 속에서 살인혐의로 복역 중인 무국적의 여인과 냉철한 교도관의 사랑을 그리는 영화다.

이정진은 냉철한 이성과 따뜻한 감성을 모두 지닌 교도관 서준 역을 맡았다. 아내가 떠난 뒤 경직되고 외로운 일상을 보내던 중 알 수 없는 슬픔을 지닌 여인을 만나면서 서서히 그리고 격정적으로 변화해 가는 감정을 연기한다.

임수향은 살인혐의로 복역 중인 비밀스러운 여자 은하 역에 캐스팅됐다. 다음달 15일 충청남도 홍성에서 첫 촬영을 시작한다.

/장병호기자

THE WORLD'S PREMIER ELECTRONIC MUSIC FESTIVALS

JUNE 12.13 2015

OLYMPIC STADIUM
SEOUL // KOREA

상상 그 이상의 새로운 경험! 절대 놓칠 수 없는 올여름 단 이틀간의 초대형 파티
울트라 뮤직 페스티벌 코리아!!

전세계 탑 DJ 아티스트들의 무대 메인 스테이지, 충격적 사운드와 생생한 라이브음악을 전하는 라이브 스테이지,
일렉 음악의 역사와 스피릿을 전할 언더그라운드 스테이지, 뜨거운 여름의 상징적인 스테이지가 될 매직비치 스테이지까지!
단 2일간, 4개의 스테이지에서
세계적인 별들 **Hardwell, Nicky Romero, Skrillex, Alesso, David Guetta, Knife Party, Porter Robinson, Galantis, CL , 2manydjs** 등
100여명이 넘는 최정상 아티스트들과 함께 상상 그 이상의 새로운 세계가 펼쳐집니다!

UMFKOREA.COM | /UMFKOREA /UMFKOREA /UMFTV

울트라 뮤직 페스티벌 코리아

2015년 6월 12일(Fri), 13일(Sat) 잠실종합운동장

HOST UC KOREA | ORGANIZER 하나투어 GOMTV NV ENTERTAINMENT | SPONSOR BCcard

Carlsberg METROCITY MOËT & CHANDON samick | PARTNER 지니뮤직 genie ARMANI / DOLCI SOCAR twitter | SUPPORTER 주한미국대사관

김윤서, 순정녀로 변신

배우 김윤서(사진)가 순정녀로 변신한다.

김윤서는 JTBC 새 금토극 '사랑하는 은동아'에서 신경외과 의사 박현아 역을 맡았다. 시한부 선고를 받은 남자를 사랑하면서 부모와의 인연을 끊고 딸을 낳지만 남편이 죽어 싱글맘이 된다.

특히 김윤서는 지난해 MBC '전설의 마녀' 속 질투심 가득한 모습과 전혀 달라 시선을 사로잡는다. 전작의 단발머리 대신 긴 머리를 선택해 순정녀 캐릭터에 대한 몰입도를 높였다. /전효진기자

윤소이 "출연 계기는 채정안"

SBS '썸남썸녀' 정규 편성…"있는 모습 그대로 보여줄 것"

배우 윤소이가 채정안때문에 SBS 예능프로그램 '썸남썸녀'에 출연했다.

윤소이와 채정안은 '썸남썸녀'를 통해 함께 생활한다. '썸남썸녀'는 썸타기에 지친 출연진이 진실한 사랑을 찾기 위해 동고동락하며 성장해가는 솔직한 모습을 담아낸다. 설특집 파일럿 프로그램으로 방송된 후 정규 편성됐다.

윤소이는 28일 서울 양천구 목동에서 열린 프로그램 제작발표회에서 "파일럿 방송을 통해 채정안을 봤다. 어릴 때부터 친했는데 채정안이 있는 그대로의 자신을 보여주는 걸 보고 나도 스스로를 깨보고 싶었다"고 출연 이유를 전했다.

이어 "고등학생 때 데뷔해 나를 잘 모르고 살았다"며 "이성을 만날 때도 일하면서 했던 가식적인 모습이 나오더라. 리얼 예능이라 어느 순간 카메라를 잊고 진짜 나를 보여주게 된다"고 관전 포인트를 설명했다.

윤소이의 출연 동기가 된 채정안은 파일럿 방송 당시 '지금 낳아봤자 노산이야'라고 말하는 등 파격적이고 솔직한 모습으로 주목 받았다. 채정안은 이날 "방송 전엔 지인들이 '차도녀 이미지로 편안하게 가자'고 했다. 근데 나는 그런 모습이 답답했었고 진짜 나를 보여주고 싶었다"며 "채정안이 아닌 장정안(본명)으로 대중과 소통하고 싶었다. 방송된 후 사람들이 나를 친근하게 느끼는 흥미로운 상황이 벌어지고 있다"고 '썸남썸녀'의 화제성을 언급했다.

그동안 연애 리얼리티 프로그램은 진정성 논란에 휩싸였다. 이에 대해 장석진 PD는 "차별화를 고민했다. 우리의 무기는 진정성"이라며 "나도 현재 혼자다. 과거에 썸을 타봤고 출연진과 비슷한 고민을 했다. 이들과 함께 제작한다는 걸 시청자에게 보여주고 싶다"고 말했다.

채정안·윤소이 외 김정난·선우선·심형탁·채연·김지훈·강균성·이수경·서인영이 출연하는 '썸남썸녀'는 28일부터 매주 화요일 오후 11시15분 방송된다.

/전효진기자 jeonhj89@metroseoul.co.kr

SBS 예능프로그램 '썸남썸녀' 윤소이·채정안. /손진영기자 son@

TV 하이라이트

◆ MBC '황금어장 – 라디오스타' 오후 11시15분

2050 나이대별 총출동

진세연·박은혜·김응수·신정근이 출연하는 '내 나이가 어때서' 특집이 방송된다. 모태솔로 진세연은 "첫사랑과 결혼하고 싶다"는 말과 함께 요즘 젊은이들과는 다른 연애관을 공개해 이목을 집중시킨다. 그녀는 그동안 보여주지 않았던 댄스와 펜싱 실력을 선보여 눈길을 끈다. 신정근은 기존의 이미지를 깨고 반전 개인기를 선보여 스튜디오를 웃음바다로 만든다.

◆ KBS2 '착하지 않은 여자들' 오후 10시

김현정(도지원)과 이문학(손창민)이 농도 짙은 첫 키스신을 보인다. 혼자 지내게 된 장모란(장미희)은 안국동을 그리워한다. 정마리(이하나)는 이루오(송재림)의 집에서 연구 교수 합격 축하파티를 열고, 강순옥(김혜자)은 세무조사에 충격을 받아 쓰러지고 만다.

◆ tvN '수요미식회' 오후 9시40분

이번 주제는 대한민국 대표 메뉴인 '삼겹살'이다. 연예계를 대표하는 미식가 신동엽과 이현우가 새 멤버로 합류한다. 윤세아가 게스트로 출연해 극찬한 대패 삼겹살부터 지드래곤과 태양이 제주도에 가면 제일 먼저 들른다는 흑돼지집까지 다양한 식당이 공개된다.

◆ JTBC '크라임씬2' 오후 11시

네 번째 사건인 '재벌 여대생 살인사건'이 공개된다. 엑소의 시우민이 게스트로 출연한다. 생일파티 다음 날 자신의 방에서 목을 맨 채 주검으로 발견된 여자를 둘러싸고 의문의 다섯 남자가 용의선상에 오른다. 그녀를 죽인 범인이 누구인지 추리 대결이 펼쳐진다. /정리=이유리기자 yuril@

*이 프로그램은 방송사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29일 (수)

지상파	KBS1	KBS2	MBC	SBS	EBS1	EBS2
18시	00 6시 내고향 55 시청자칼럼 우리 사는 세상	00 KBS 글로벌 24 30 2TV 저녁 생생정보	10 생방송 오늘 저녁	00 생방송 투데이	00 톡! 톡! 보니 하니 1 (2828회) 05 코코몽 3 25 꼬마 철학자 휴고 45 동생이랑 나랑 (9회)	00 하늘 놀이터 (재) 25 Real Fun World (재) 30 출동! 슈퍼윙스(영어·한국어) (재) 50 Real Fun World2 (재) 55 시계마을 티키톡!(영어) (재)
19시	00 KBS 뉴스 7 30 엄마의 탄생	50 오늘부터 사랑해 (18회)	15 불굴의 차여사 (79회) 55 MBC 뉴스데스크	20 달려라 장미 (96회)	00 곤 30 EBS 뉴스 50 사선에서	10 시계마을 티키톡!(한국어) (재) 25 내 친구 아서(영어) (재) 35 Real Fun World3 (재) 40 내 친구 아서(한국어) (재) 50 두키 탐험대(영어)
20시	25 당신만이 내사랑 (113회)	30 반려 동물 극장 단짝 55 비타민	55 압구정 백야 (137회)	00 SBS 8 뉴스 55 영재발굴단	40 다큐 오늘 50 세계 테마 기행	00 Real Fun World4 (재) 10 두키 탐험대(한국어) 20 스쿨랜드 (재) 30 공부의 왕도 (재)
21시	00 KBS 뉴스 9		30 리얼스토리 눈	50 뉴스특보-4.29 재보선	30 한국기행 50 EBS 다큐 프라임	00 다큐 오늘 10 EBS 스타 강사 특강
22시	00 생로병사의 비밀 55 숨터	00 착하지 않은 여자들 (19회)	00 앵그리맘 (13회)	00 냄새를 보는 소녀 (9회)	45 극한 직업	00 영화로 배우는 영어 <분노의 역류>
23시	00 KBS 뉴스라인 40 문화빅뱅 윤건의 더 콘서트	10 특선영화<아이언맨 3>	15 MBC 뉴스특보 15 황금어장라디오스타	15 한밤의 TV연예	35 세계견문록 아틀라스	
24시	50 동행 (재)		45 MBC 뉴스 24	35 특집 나이트라인	05 지식채널e (재) 10 한국영화특선 <황진이> (재)	30 선생님 선생님 우리 선생님 (재)
케이블	JTBC	tvN	올리브TV	내셔널지오그래픽	채널CGV	스포츠
18시	30 냉장고를 부탁해 (24회) (재)		00 푸드에세이 (16회) 30 포토캠핑로그 (3회)			◆ 프로야구 18:30 KT vs 두산 (MBC SPORTS+) 롯데 vs 넥센 (SPO TV+, SPO TV) NC vs SK (KBS N SPORTS) LG vs 삼성 (SKY TV) 한화 vs KIA (SBS SPORTS, IB SPORTS) ◆ 수원 JS컵 U-18 국제청소년축구대회 20:00 대한민국 vs 우루과이 (SBS CNBC)
19시	40 연금복권 520 (200회) 55 JTBC 뉴스룸	40 명단공개 (60회) (재)	00 포토캠핑로그 (4회) 30 식샤를 합시다 2 (3회)	00 쇼킹 70억 (27회)		
20시	50 JTBC 뉴스룸	40 강용석의 고소한 19 (130회)	45 식샤를 합시다 2 (4회)	00 <Wild, 최후의 승자>왕좌의 게임	00 판타스틱 4 II – 실버서퍼의 위협	
21시	40 유자식상팔자 (99회)	40 수요미식회 (14회)		00 대결! 사자 vs 하마		
22시			00 올리브쇼 2015 (14회)	00 세계로 가는 아시아 헌터 (13회)	00 퍼펙트	
23시	00 크라임씬 2 (4회)	00 고교10대천왕 (1회)	00 2015 테이스티로드 (15회)	00 <2차 세계대전 최고의 작전, 더 레이드>히틀러 최후의 도박		
24시	40 내 친구의 집은 어디인가 스페셜 (12회)	20 꽃보다 할배 in 그리스 (5회) (재)	00 오늘 뭐 먹지? (28회) 30 오늘 뭐 먹지? (52회)	00 서바이벌 알래스카3 (2회)	00 몬스터	

추락 KT, 용병교체 카드 꺼낸다

지난 23일 SK 와이번스와의 경기에서 옆구리 통증으로 교체되고 있는 KT 외국인 타자 앤디 마르테.

부진 시스코·어윈 퇴출 초읽기… 투수 1명·타자 1명 보강 계획

프로야구 '막내구단' KT 위즈가 꼴찌를 할 것이라고 누구나 예상은 했지만 너무 압도적이어서 당황스럽다.

23경기 만에 3승 20패를 기록하며 역대 최단경기 20패 기록을 썼다. 승률 0.130 역시 역대 최하위다. 9위 NC 다이노스(9승 13패)와는 벌써 6.5경기 차다.

투타 모두 총체적 난국이다. 팀 평균자책점 5.97, 피홈런 31개, 볼넷 131개 등 다른 팀과 비교하는 것 자체가 무의미하다.

팀 타율 역시 0.219로 최하위다. 홈런(9개)은 유일하게 한자릿수에 머무르고 있고 삼진(208개)은 10개팀 중 유일하게 200개를 넘겼다.

더이상 두고볼 수 있는 상황이 아니다. 특단의 조치를 취해야 한다.

화끈한 트레이드도, 선수 영입도 현실적으로 쉽지 않다. 그렇다고 2군에서 불러올릴 마땅한 자원도 없다. '스나이퍼' 장성호 카드가 남아 있지만 지난 시즌 5경기 출전이 전부인 그가 1군에서 얼마나 활약할 지는 미지수다.

결국 분위기를 바꿀 수 있는 유일한 카드는 외국인 선수 교체다. 기대를 모았던 투수 중 옥스프링(1승3패 평균자책점 3.86)이 창단 첫 승리를 안기는 등 그나마 버텨 주고 있지만 앤디 시스코(4패·평균자책점 7.89)와 필 어윈(3패·평균자책점 7.85)은 기대 이하다. 시스코와 어윈은 조만간 교체될 것이 확실하다.

KT는 현재 내부 정보망을 통해 선수들 정보를 수집하고 있다. 다음주 실무자가 미국으로 출국한다.

KT 조범현 감독은 공격력이 너무 빈약한 KT의 사정을 감안해 2명의 투수를 타자 1명, 투수 1명으로 교체하고 싶다는 의견을 내비쳤다. 부상으로 빠진 외국인 타자 앤디 마르테가 복귀하면 용병 투수 2명과 타자 2명으로 가겠다는 복안이다.

경기마다 3명까지 용병 출전이 가능하기 때문에 외국인 선발투수 2명을 경기마다 돌리면 된다.

/김민준기자 mjkim@metroseoul.co.kr

잘나가는 한화, 지원군까지…

송광민 1군 등록…'안방마님' 조인성도 눈앞

5할 승률을 넘기며 신바람을 내고 있는 한화 이글스에 또 지원군이 합류한다.

한화는 28일 광주-KIA 챔피언스필드에서 열리는 KIA 타이거즈와 2015 타이어뱅크 KBO 리그 원정경기를 앞두고 송광민(32·사진)을 1군 엔트리에 등록했다. 전날 주현상을 엔트리에서 말소하면서 송광민을 위한 자리를 마련했다.

송광민은 시즌 초 11경기에서 타율 0.176으로 부진해 2군행을 통보받았다. 하지만 최근 퓨처스(2군)리그 7경기에서 24타수 13안타(타율 0.542) 2홈런 10타점을 기록하며 타격감을 끌어올렸다.

김성근 한화 감독은 공격력 강화를 위해 송광민을 1군으로 불렀다. 지난해 3루수로 활약했던 송광민은 올해 스프링캠프에서 좌익수 훈련을 받으며 내외야 모두 기용할 수 있는 선수로 탈바꿈했다.

종아리 부상으로 1군에서 제외된 베테랑 포수 조인성의 합류도 앞당겨졌다. 조인성은 24~26일 서산에서 열린 고양 다이노스와 퓨처스리그 경기에 연속 출전하며 실전 감각을 키웠다. 일단 광주로 이동해 1군 선수단과 함께 훈련하면서 1군 엔트리 등록 시점을 결정할 계획이다.

/김민준기자

LA다저스 브랜던 매카시.

류현진 복귀 빨라지나

다저스 3선발 매카시 팔꿈치 부상 시즌 아웃

LA 다저스가 맞수 샌프란시스코 자이언츠에 3연패 뒤 시즌 첫 승리를 거뒀다. 하지만 류현진을 대신해 3선발 자리를 맡았던 브랜던 매카시(32)가 부상으로 시즌을 마감해 비상이 걸렸다.

다저스는 28일(한국시간) 메이저리그 샌프란시스코와의 홈경기에서 3회말 대거 4점을 뽑는 등 타선이 폭발해 8-3으로 승리했다. 이날 승리로 12승 7패를 기록한 다저스는 내셔널리그 서부지구 선두를 유지했다.

그러나 이날 미국 스포츠일러스트레이티드(SI)는 "정밀진단 결과 매카시의 오른쪽 팔꿈치 인대가 찢어져 나머지 시즌 출장이 불가능하다"고 보도했다. 매카시는 26일 샌디에이고 파드리스전에 선발로 나가 6회에 저스틴 업튼에게 3점 홈런을 내준 직후 팔꿈치에 통증을 느끼고 자진 강판했다.

류현진을 대신해 3선발을 맡아온 매카시는 올 시즌 4경기에 출장해 23이닝을 소화하며 3승 무패를 기록했다. 그런 매카시가 쓰러지면서 다저스 마운드에도 상당한 타격이 예상된다.

다저스는 4월 한 달 동안 클레이턴 커쇼와 잭 그레인키라는 걸출한 '원투펀치'에 매카시와 브렛 앤더슨을 더해 4선발 체제를 운영해왔다. 매카시가 빠진 상황에서 새로운 선발 투수를 충원해야 하지만 당장 마땅한 후보도 없는 실정이다.

이에 따라 아직 불펜 피칭 정도만 소화하는 류현진의 복귀 일정도 조정될 가능성이 커 보인다.

/김민준기자

추신수, 1할 타율 '붕괴'
강정호, 나흘째 벤치만

추신수(33·텍사스 레인저스·사진)의 방망이가 6경기째 차갑게 식었다.

추신수는 27일(현지시간) 미국 텍사스 주 알링턴의 글로브 라이프 파크에서 벌어진 메이저리그 시애틀 매리너스와의 홈경기에서 7번 타자 우익수로 출전해 삼진 2개를 포함해 4타수 무안타로 경기를 마쳤다. 지난 19일 시애틀전 이후 20타수 무안타로 극심한 슬럼프에 빠졌다. 시즌 타율도 1할대 밑인 0.096(52타수 5안타)로 추락했다.

텍사스는 시애틀보다 3개 많은 안타 8개를 치고도 집중력 부족으로 1-3으로 졌다.

강정호(28·피츠버그 파이리츠)는 시카고 컵스와의 원정경기에서 그라운드를 밟지 못하며 나흘 연속 벤치를 지켰다. 피츠버그는 컵스에 0-4로 패해 연승 행진(5연승)을 마감했다.

/김민준기자

It’s best to admit mistakes quickly

<실수는 할 수 있지만 빨리 인정해야 한다>

시사 English

“실수는 할 수 있지만 빨리 인정해야 합니다.”

지난 24일부터 ‘휴대폰 요금 20% 할인’이 시행 중입니다. 다들 통신사에 전화하기 바쁩니다. 지원금 상응 요금할인은 단말기 구입시 이동통신사에서 단말기 지원금을 받지 않는 소비자라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소비자들은 지원금과 요금할인을 반드시 비교한 후 본인에게 유리한 선택을 해야 합니다.

지난 17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새정치민주연합 우상호 의원실 주최 ‘단통법 시행 6개월 평가 토론회’에서 참석자들이 주제발표를 듣고 있다. /연합뉴스

이번 요금 할인 대책은 단말기유통법(단통법)의 문제가 드러나자 정부가 궁여지책으로 내놓은 겁니다. 단통법은 보조금 경쟁을 막고 이를 통해 가계통신비 절감을 하자는 것이 본래 취지입니다. 법 시행 6개월이 지난 지금 드러난 결과는 반쪽짜리 법이라는 겁니다. 불법 보조금 경쟁을 막는 목적에서는 성과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가계통신비 절감은 실패했습니다.

학계, 시민단체, 유통업계 등 사회구성원 대다수가 한 목소리로 시장의 자율경쟁에 맡겨야 할 것을 정부가 과잉 규제한 결과라고 말합니다. 심지어 통신사조차 법 시행 이후에도 마케팅비는 줄지 않았는데 통신비 인하 요구가 빗발친다며 하소연합니다.

고인이 된 스티브 잡스는 “Sometimes when you innovate, you make mistakes. It is best to admit them quickly, and get on with improving your other innovations”라고 했습니다. “가끔은 혁신을 추구하다 실수 할 때도 있다. 하지만 빨리 인정하고 다른 혁신을 통해 개선해 나가는 것이 최선” 이라는 뜻입니다. ‘get on with’는 ‘~와 일치하다’ 또는 ‘~을 해나가다’라는 의미입니다. /김서이기자 redsun217@

출근길 두뇌 스트레칭 재미가 듬뿍! 아이큐가 쑥쑥!

SUDOKU

1. 모든 세로줄에는 1~9까지의 숫자가 겹치지 않게 들어갑니다.
2. 모든 가로줄에는 1~9까지의 숫자가 겹치지 않게 들어갑니다.
3. 가로, 세로3×3으로 이뤄진 작은 사각형 안에도 1~9의 숫자가 겹치지 않아야 합니다.

	6	9	1					
8		1		7	4			
4			8			3		
		8		6				
5	7						9	6
				4		1		
		5			6			7
			4	9		6		3
					5	9	8	

		9		3				5
	5				7	2		4
	2		4				1	
		2			6		5	8
5	3		1			4		
	7				9		8	
2		5	6				7	
8				7		9		

스도쿠 정답

2	6	9	1	5	3	7	4	8
8	3	1	6	7	4	5	2	9
4	5	7	8	2	9	3	6	1
9	1	8	5	6	7	2	3	4
5	7	4	3	1	2	8	9	6
6	2	3	9	4	8	1	7	5
3	9	5	2	8	6	4	1	7
7	8	2	4	9	1	6	5	3
1	4	6	7	3	5	9	8	2

1	4	9	8	3	2	7	6	5
6	5	8	9	1	7	2	3	4
3	2	7	4	6	5	8	1	9
9	1	2	7	4	6	3	5	8
7	8	4	2	5	3	6	9	1
5	3	6	1	9	8	4	2	7
4	7	1	3	2	9	5	8	6
2	9	5	6	8	4	1	7	3
8	6	3	5	7	1	9	4	2

문제 제공= 보누스
‘멘사 스도쿠 프리미어’
(피터 고든·프랭크 롱고 지음)

김상회의 사주속으로

김상회 역학연구원
02) 533-8877
www.saju4000.com

선배와 유황광산개발 동업을 해도 될까요
상부상조 궁합… 품목선정엔 신중하시길

홍길동2 남자 61년 7월 16일 양력 10시경
남자 59년 4월 24일 4시경

Q 선생님의 쾌도난마와 같은 사주상담에 존경을 표합니다. 저의 인생행로에 지침을 받고자 합니다. 저는 1961년 7월 16일 양력 10시경이 제생일 입니다. 저의 학교 선배와 같이 유황 광산 개발 사업을 하려고 합니다. 유황이 약품이나 건강식품에 많이 사용 되는 것이므로 사업이 잘 되면 대박이 날수 있다고 하는 선배 생일은 1959년 4월 24일 새벽 4시경이 입니다. 동업이란 것이 처음에는 서로 합의가 잘 되지만 사업 진행에 따라 본의 아니게 원수가 질 수도 있는 일이므로 조심스럽습니다. 이 선배와 제가 궁합이 잘 맞는지 부탁드립니다.

A 육십갑자(六十甲子)중에서 경진 경술 임진 임술 무술(庚辰 庚戌 壬辰 壬戌 戊戌)을 괴강 이라고 합니다. 사주팔자에서 일주(日柱;태어난 날)가 이중의 하나에 속하면 괴강 일주라고 합니다. 괴강(보스기질에 과격함)은 양(陽)의 성격이고 어려운 일을 잘 참고 견디는 힘이 강하며 힘든 일이 있어도 쉽게 무너지지 않고 이겨냅니다. 그런데 이렇게 강하다보니 부작용이 생기기도 합니다. 다른 사람과 불화가 생기고 스스로 성격을 이기지 못해서 잘못된 선택을 하는 경우가 적지 않은 경우도 많은데 잘 해나가기 위해서 설명을 잘 들어 보시기 바랍니다. 동업을 하는 것은 돈이든 능력이든 서로가 부족한 점을 채울 수 있기 때문이라고 봅니다. 잘 유지되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이익배분에서 상대방보다 자신이 덜 갖고 가며 일은 더 많이 하겠다는 철칙을 준수해야 할 것입니다. 노력과 투자를 자신이 더 많이 했는데 상대는 별로 하는 것 없이 더 가져간다고 또는 내가 더 가져가야겠다고 생각하는 순간 깨지게 돼 있습니다. 귀하는 재관(財官)이 통근 돼 있으며 해수(亥水)로 토(土)를 윤택하게 하여 경금(庚金)인 귀하를 생(生)해주는 길명(吉命)입니다. 생일지(生日支)가 공업성(工業星)으로 기술계통이나 활인 분야에서 활동하기도 하니 건강관련 일을 하게 되었다고 봅니다. 동업자는 생일지에 관살혼잡(官殺混雜)으로 매우 현실적이라 목표를 위해 열심히 하는 성향을 보입니다. 두 분의 사주를 보면 서로 상부상조 할 수 있으며 표면적으로는 안 맞는 것 같지만 내적으로는 합(合)을 이루고 있습니다. 단 현재의 업종이 요즘 다소 불편한 내용으로 전달되고 있으니 품목선정을 다시 잘해보시기를 권해드립니다.

자신의 사주를 알고 싶은 독자들은 메트로 홈페이지(www.metroseoul.co.kr) 연재 ‘사주 속으로’ 를 클릭해 생년월일과 태어난 시, 그리고 상담을 원하는 내용을 적어 올려 주십시오. 추첨을 통해 사주풀이를 해드리겠습니다.

신점[神占] 운세 4월 29일 (음 3월 11일) 사주스타(www.sajustar.com) 060-300-8400

48년생 너무 거만하지 마세요. **60년생** 일을 적당히 처리하는 것은 금물입니다. **72년생** 이성과 다툼을 주의하세요. **84년생** 고민하던 이성문제가 해결의 길이 보입니다.

49년생 유혹에 넘어갈 수 있습니다. **61년생** 늘 명랑한 기분을 유지하도록 하세요. **73년생** 오래전부터 만나고 싶어하던 귀인이 찾아옵니다. **85년생** 삶을 좀 더 즐겁고 활기차게 살도록 하세요.

50년생 사람들로부터 오해를 받게 됩니다. **62년생** 사치를 삼가하세요. **74년생** 이성 문제로 고민을 하게 될것입니다. **86년생** 주위사람에게 칭찬 또는 인정을 받게 됩니다.

51년생 어려운 시기가 예상됩니다. **63년생** 고생을 각오하면 좋은 결과가 있을 것입니다. **75년생** 자신의 상태에 만족하는게 좋을 것입니다. **87년생** 다툼을 주의한다면 결과가 좋습니다.

52년생 좀 기다리고 행동하세요. **64년생** 신중하게 생각하고 실천에 들어가세요. **76년생** 잠시 휴식을 취하는 것이 좋습니다. **88년생** 처음부터 너무 많은 것을 바라지 마세요.

53년생 동쪽에서 귀인이 찾아와 도움을 줍니다. **65년생** 신선한 것이 가장 좋은 것입니다. **77년생** 몸과 정신이 맑으면 마음이 평화롭습니다. **89년생** 즐거운 하루가 될것입니다.

54년생 적극적으로 밀고 나아가세요. **66년생** 주변 사람들과의 갈등을 조심하세요. **78년생** 호흡기질환을 조심하세요. **90년생** 학업에 열정을 갖는 것이 길합니다.

55년생 어려운 때를 만나 길을 잃고 방황할 수 있겠습니다. **67년생** 능력 있는 윗 사람을 만납니다. **79년생** 집에 있음이 좋을 것입니다. **91년생** 친구들과 오붓한 시간을 보내게 됩니다.

56년생 잠든 사이에 세상은 너무나 많이 변해 있습니다. **68년생** 소인배와 함께 다니면 반드시 안좋은 일을 겪게 됩니다. **80년생** 의지를 확고히 할 때입니다. **92년생** 몸을 조심하세요.

57년생 건강운이 길하지 못합니다. **69년생** 친구의 도움을 청하는 것이 좋을 것입니다. **81년생** 분명한 판단이 서지 않는 일은 추진하지 마세요. **93년생** 서쪽으로의 여행이 좋습니다.

58년생 작은 것에 만족할 줄 아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70년생** 어려운 고비를 넘깁니다. **82년생** 단합이 필요로 하는 시기입니다. **94년생** 몸관리 철저히 하도록 하세요.

59년생 모든 사람이 나의 벗이 됩니다. **71년생** 모든일이 원만히 풀려 나갑니다. **83년생** 여행을 떠나기에 좋은 시기입니다. **95년생** 도울 수 있는 사람은 동쪽에 있습니다.

윤승모, '홍준표 1억' 조성에 적극 개입

성 회장 측근 관련 진술 받아내, 조기 소환 가능성

검찰이 '홍준표 1억' 조성에 윤승모 전 경남기업 부사장이 적극 개입했다는 진술을 확보함에 따라 홍 지사의 조기 소환가능성이 점쳐지고 있다.

28일 검찰 특별수사팀(팀장 문무일 검사장)은 홍 지사의 금품수수 의혹 사건 전반에 윤씨가 많은 역할을 수행했다는 진술을 최근 성 전 회장 측근들로부터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성 전 회장은 사망 직전 인터뷰에서 2011년 6월쯤 경남기업 한모 전 재무담당 부사장을 시켜 현금 1억원을 마련한 뒤 옛 한나라당 대표 최고위원 경선에 나선 홍 지사에게 이 돈을 전달했다고 주장했다.

당시 홍 지사 측 캠프에 몸담고 있던 윤씨는 한 전 부사장으로부터 받은 1억원을 쇼핑백에 담아 국회 의원회관 사무실에서 홍 지사에게 줬고, 홍 지사는 이튿날 성 전 회장과 통화에서 '감사인사'를 했다는 게 지금껏 정치권에 퍼진 의혹 내용이다. 윤씨는 이 의혹에서 표면적으로는 돈을 전달한 인물로만 그려져 있다.

검찰에 따르면 박준호(49·구속) 전 경남기업 상무와 성 전 회장의 수행비서 이용기(43·구속)씨 등 측근 인사들은 조사에서 "1억원을 마련해 건네고 사후에 확인하는 과정까지 윤씨가 잘 알고 있다"는 취지의 진술을 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윤씨가 성 전 회장과 함께 홍 지사 측에 자금을 지원하는 방안을 '작안 단계'부터 긴밀하게 협의했을 가능성에 주목하고 있다. 당시 홍 지사는 유력한 당권주자로 꼽혔고 당대표로 선출되면 이듬해 19대 총선 공천 과정에서 적지 않은 영향력을 끼칠 것으로 여겨지던 상황이었다. 총선 출마를 염두에 둔 성 전 회장과 홍 지사 측 캠프 사정에 밝은 윤씨가 '1억원 제공'을 함께 논의했고, 그에 따라 한 전 부사장이 사내 현금성 비자금에서 돈을 마련해 왔을 가능성을 검찰은 따져보고 있다.

수사팀은 윤씨를 상대로 의혹을 입증할 상당한 단서들을 확보하면 당시 경선 캠프 관계자 등 홍 지사 측 주변인물에 대한 조사를 거쳐 홍 지사를 직접 소환할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연미란기자 actor@metroseoul.co.kr

'성완종 리스트'에 있는 홍준표 경남지사가 27일 오후 경남도청 신관 대강당에서 열린 경남희망울타리 구축사업 보고대회와 맞춤형 복지급여 읍면동 담당자 교육에 참석해 인사말을 하려고 단상에 오르고 있다. /연합뉴스

미역 말리기 포항시 장기면 해안에서 어민들이 제철맞은 미역 말리기에 한창이다. /연합뉴스

法, 이준석 선장 살인죄 인정 '무기징역'

법원이 항소심에서 이준석(70) 세월호 선장에게 살인죄를 적용해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광주고법 제5형사부(서경환 부장판사)는 28일 오전 살인 등의 혐의로 기소된 이씨와 승무원 14명, 기름 유출 관련 청해진해운 법인 대표 김한식(73)씨에 대한 항소심 선고공판을 진행했다.

재판부는 "참사 당시 선장 등의 퇴선명령과 퇴선방송이 없었다고 판단 한다"며 1심과 달리 이씨의 살인에 대한 미필적 고의를 인정했다.

이어 재판부는 "이씨는 일명 '골든타임'에 어떤 구호조치도 하지 않은 채 세월호에서 탈출했다"며 "이는 마치 고층 빌딩 화재 현장에 출동한 구조대장이 옥상의 헬기를 타고 먼저 탈출한 것과 같다"고 말했다.

앞서 7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1심과 같은 구형량인 사형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1심 재판부는 이씨에게 징역 36년을 선고했다. 그러나 검찰이 주장한 살인죄는 인정하지 않았다.

이날 항소심에서 재판부는 박모(54) 기관장에게 징역 10년, 강모(43) 1등 항해사 징역 12년, 김모(47) 2등 항해사 징역 7년, 박모(26·여) 3등 항해사 징역 5년 등을 선고했다.

참사 전날인 지난해 4월 15일 세월호에 승선한 신모(34) 1등 항해사(견습)와 전모(62) 조기장에게는 각각 징역 1년 6개월을 판결했다. /이홍원기자

홈플러스 도성환 "1㎜ 글씨로 개인정보 제공 표시했다"

경품행사를 통해 고객들의 개인정보를 수집해 보험사에 팔아넘긴 혐의로 기소된 도성환(60·사진) 홈플러스 사장이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6단독(부상준 부장판사) 심리로 28일 열린 첫 공판준비기일에서 도 사장 측은 "검찰이 여론에 편승해 무리하게 기소했다"며 "대표자, 종업원, 회사는 죄가 없다"고 주장했다.

특히 도 사장 변호인은 검찰의 기소과정에서 '개인정보 수집을 목적으로 한 경품행사는 금지돼 있다'고 전제한 점을 반박했다. 법적 근거가 분명하지 않다는 것이다.

변호인은 "당시 개인정보 제공 동의와 관련한 사항을 작은 글씨로 고객들에게 설명했다"며 불법성이 없었다고 반박했다.

홈플러스 측에 의하면 경품행사 때 일부 응모권 뒷면에 1㎜ 크기의 글씨로 보험사에 대한 개인정보 제공 내용을 표시했다는 것이다.

고객 동의 없이 개인정보를 보험사에 판매한 점에 대해서 변호인은 "대부분의 다른 사례에서는 정보 판매 여부까지 알리지 않는다. 그것도 다 범죄인가"라고 되물었다.

이에 검찰은 "홈플러스의 경품행사 실제 목적은 개인 정보를 유상 판매하려는 것이었지만 이를 고객 사은 행사로 가장했다"며 "고객에게 개인정보 수집 목적을 제대로 알리지 않았기 때문에 기소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 검찰은 "홈플러스가 정보주체의 정보제공 결정권을 침해하고 1년에 4~6차례 경품 행사를 하면서도 경품을 제대로 지급한 사례가 거의 없다"고 설명했다.

당시 홈플러스는 경품행사 기간 동안 응모 고객들에게 경품 당첨이 되면 문자메시지로 알려준다며 연락처를 적도록 했다. 그러나 홈플러스가 고객에게 문자를 보낸 적이 없었으며 다이아몬드 등 당첨 사실을 알리지도 않았다. 또 당첨자에게서 연락이 오면 자사 상품권으로 갈음한 것으로도 조사됐다.

앞서 홈플러스 법인과 도 사장 등 전·현직 임직원 6명은 경품행사로 모은 개인정보 2400만여건을 보험사에 231억7000만원에 팔아 넘긴 혐의로 2월 기소됐다. 회원정보를 받은 보험사 2곳 관계자 2명도 함께 기소됐다.

이 사건의 2차 공판준비기일은 오는 6월 2일 오전 10시에 열릴 예정이다. /이홍원기자 hong@

이 전총리·홍준표 측근 각 1명씩 오늘 소환

뚜렷한 성과를 보이지 않던 '성완종 리스트' 수사가 이완구 총리의 사퇴로 새 국면을 맞았다. 순방을 마친 박근혜 대통령이 이 총리의 사표를 즉각 수리하면서 '현직 총리 소환' 부담을 떨친 검찰이 '8인 측근들'로 방향타를 돌릴 거란 전망이 나왔다.

28일 검찰 특별수사팀(팀장 문무일 검사장)은 이 전 국무총리와 홍준표 경남지사 측의 일정담당자 각 1명씩을 29일 소환해 금품 수수 의혹에 대한 사실관계를 확인한다는 계획이다. 이날 수사팀은 성완종 전 경남기업 회장의 핵심 측근인 정낙민 인사총무팀장을 전날 참고인 신분으로 소환한지 반나절이 채 지나지 않아 다시 재소환했다. 성 전 회장이 국회의원이던 당시 보좌관이었던 정 팀장은 성 회장이 의원직을 잃은 후 경남기업으로 자리를 옮긴 핵심 측근이다.

검찰은 정 팀장을 상대로 성 전 회장의 로비 내역이 담긴 장부의 존재에 대해 집중 추궁하고, 지난달 압수수색 직전 증거를 빼돌리는 과정과 자료의 행방에 대한 조사를 이어가고 있다.

잇따라 구속된 박준호 전 상무와 수행비서 이용기씨, 재소환 된 정 팀장까지 이른바 성 전 회장의 측근 3인방을 통해 일부 자료와 증언들을 확보하면서 검찰은 리스트 8인 측근들의 소환 카드를 본격적으로 꺼내들었다.

한 중견 변호사는 "(이 전 총리의 경우) 정황 증거도 많고 (금품수수 당시) 운전기사의 폭로 등이 있어 더 활발하게 움직일 가능성은 있지만 효과는 크지 않을 것"이라며 "변호사를 선임해 수사에 대비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연미란기자 actor@